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중 서비스 무역구조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서비스 경쟁력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孫文娜

2015年 2月

한·중 서비스 무역구조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서비스 경쟁력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李庸完

孫文娜

이 논문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孫文娜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①

委 員\_\_\_\_\_①

委 員\_\_\_\_\_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5年 2月

## < 목 차 >

<b>I. 서론</b>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b>II. 한·중 서비스 무역구조의 현황</b> .....	4
1. 서비스무역의 중요성 과 분류 .....	4
1) 서비스무역의 중요성 .....	4
2) 서비스무역의 분류 .....	6
2. 한국과 중국서비스무역 구조의 현황 .....	8
1) 세계 서비스무역 구조의 추이 .....	9
2) 한국의 서비스무역 구조의 현황 .....	16
3) 중국의 서비스무역 구조의 현황 .....	25
<b>III. 한·중 서비스 무역구조 비교분석</b> .....	30
1. 한·중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지수 분석 .....	30
1)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의 비교 분석 .....	30
2) 무역특화지수(TSI)의 비교분석 .....	31
3) 산업간 특화지수의 비교분석 .....	35
4) 국제 시장점유율(IMS) .....	42
5) 상대적 시장집중도 지수의 비교분석 .....	43
2. 한·중 서비스무역에 대한 경쟁력 평가 .....	49
1) 한국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평가 .....	52
2) 중국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 평가 .....	53
<b>IV. 한·중 서비스 무역의 발전방안</b> .....	56
1. 한·중 서비스무역의 문제점 .....	56
1) 한국의 대 중국서비스 무역의 문제점 .....	56
2) 중국의 대 한국서비스 무역의 문제점 .....	58
2. 한·중 서비스무역의 발전방안 .....	61

1) 한국의 대 중국서비스 무역의 발전방안 .....	64
2) 중국의 대 한국서비스 무역의 발전방안 .....	67
V. 요약 및 결론 .....	64
참고문헌 .....	67
Abstract .....	69



## < 표 목차 >

1. <표 2-1>서비스 분류코드 .....	6
2. <표2-2>서비스부문과 범위 .....	7
3. <표 2-3>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세 .....	9
4. <표2-4>2008~2013년 세계 서비스 산업별 현황 .....	10
5. <표2-5> 세계 주요 서비스 및 상품 무역국 순위(2011년) .....	12
6. <표 2-6> OECD 가입국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GDP대비1997~2007년) .....	13
7. <표 2-7> 세계 서비스무역의 부문별 수출입 비중 .....	14
8. <표2-8>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구성비(2010년) .....	16
9. <표 2-9> 한국의 경제활동별 실질 GDP (2003년~2013년) .....	17
10. <표 2-10> 산업별 고용 현황(2006~2013년) .....	20
11. <표 2-11> 한국 서비스 무역의 업종별 현황(2011~2013년) .....	24
12. <표 2-12> 중국서비스무역 세계 순위(1999년~2012년) .....	26
13. <표2-13> 중국 서비스무역의 동향(2001~2012년) .....	27
14. <표 2-14> 중국서비스 산업별 현황(2007~2010년) .....	28
15. <표 2-15> 중국의 세부 항목별 서비스무역 수지(2005~2011년) .....	29
16. <표 3-1> 한국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한 비교우위 분석(2006년~2010년) .....	32
17. <표 3-2> 중국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한 비교우위 분석 .....	34
18. <표 3-3 > 한중 국제시장점유율(2003~2010년) .....	43
19. <표 3-4 > EU(27), 미국, 한국 및 중국의 서비스산업 지니계수(2006년~2010년) .....	46
20. <표 3-5> 한·중 서비스 산업의 평균경쟁력지수 비교표 .....	48
21. <표 3-6> 한국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통한 비교우위분석(2006년~2011년) .....	49
22. <표 3-7> 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통한 비교우위 분석(2006년~2011년) .....	50
23. <표 3-8> 한·중 서비스 무역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	51

## 〈그림 목차〉

1. <그림 2-1> 한국 주요 서비스업종별 고용비중이 변화(2006년~2013년) .....	22
2. <그림 2-2> 한국의 서비스부문별 누적 수출입(2009년~2013년) .....	23
3. <그림 3-1> 2003~2010한국과 중국 서비스무역 RCA지수 .....	31
4. <그림 3-2> 한·중 운송서비스부문 TSI지수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	36
5. <그림 3-3> 한·중 여행서비스부문 TSI지수로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	37
6. <그림 3-4> 한·중 통신 서비스 부문 TSI지수로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	38
7. <그림 3-5> 한·중 건설서비스부문 TSI지수로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	39
8. <그림 3-6> 한·중 보험서비스부문 TSI지수로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	40
9. <그림 3-7> 한·중 금융서비스부문 TSI지수로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	41
10.<그림 3-8> 한·중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부문 TSI지수로 경쟁력 비교 (2006년~2011년) .....	42
11. <그림 3-9> 로렌즈곡선 .....	45
12. <그림 4-1> 경기 순환에 따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수 변화 .....	57
13. <그림 4-2>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	58
14. <그림 4-3> 중국 및 세계 서비스무역 총 대외무역에서의 비중(2000~2012) .....	60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과 서비스산업 자체의 중요성, 제조업과의 보완관계, 국제적 거래 증대 등으로 인해, 서비스 무역은 국가경제에서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sup>1)</sup>서비스무역이 국제 무역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상승하고,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또한 한 국가의 경제 발전수준과 성장잠재력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sup>2)</sup>

서비스산업 무역의 발전은 경제의 글로벌화 발전의 촉진과 국가의 생산촉진, 취업증가에 따른 효율성 등의 증가로 이어져, 각국 경제의 글로벌화에 깊이 참여하는 중요 수단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선진기술과 고도로 숙련된 고임금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 지금은 세계경제발전의 지주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sup>3)</sup>

오늘날 세계 경제 구조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개별국가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국제교역도 확대되면서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1990년 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은 2000년대 들어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세계적으로 가장 풍부한 인력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의 서비스산업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발전 잠재력이 큰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통하여 WTO 가입약속에 따른 서비스시장 자유화 이전에 중국의 서비스 부문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서비스 시장을 개방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서비스 산업의

1) 김영환, "한·중 서비스산업의 서비스품질평가에 관한 비교연구", 2004, p.1.

2) 유도, "중국 서비스무역 구조 분석", 2013, p.1.

3) 김만길, "WTO통상법, 大旺社, 2006, p.288.



GDP비중이 선진국이나 신흥공업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불합리한 업종구조, 지역간 불균형 발전, 일부 업종에서의 독점체제 존속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WTO가입에 따른 중국시장의 개방은 서비스 산업자체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선제 산업구조의 합리화, 고용압력 완화, 기타 산업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 등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sup>4)</sup>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중 양국은 세계적 추세인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FTA체결에 대해서도 매우 큰 국가적 관심을 바탕으로 공식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양국 간 협정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한 서비스무역 자유화 이익은 자국의 서비스산업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의 도입으로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sup>5)</sup>

서비스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국제경제기구들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과, 점증적으로 서비스무역량이 세계의 전체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또한 서비스산업에 있어서의 이러한 흐름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sup>6)</sup>

이와 같이 세계의 서비스 무역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과 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산업무역은 세계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세계서비스산업무역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인식의 공유를 통해, 한·중 양국 간 서비스무역의 구조 분석을 통해 서비스산업무역의 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TSI), 상대적 시장집중도(RMI), 산업간 특화지수분석 에 대한 비교분석하고 양국 간 비교우위 관계를 평가하여 앞으로 양국 간 서비스부문의 국제분업에 대한 모색하고자 한다.

---

4) 유도, 전제논문,2013,p.2.

5) 왕이남, “한·중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2008,p.6.

6) 서병욱, “한국 서비스무역에 관한연구” 2014,p.2.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을 하여, 양국 통계 수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으로는 국내외 전문시적과 학술논문, 학위논문 그리고 국내 관련기관의 자료와 경제부처 웹 페이지 및 통계연감, 그리고 국제기구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무역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산업무역의 한계로 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문헌들의 자료와 통계를 이용하여 세계서비스 산업무역의 현황과 추이,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무역의 현황과 특징을 도출하는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양국의 서비스산업무역의 비교우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분석,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분석, 상대적 시장집중도(Relative Market Intensity)분석, 산업간 특화지수분석 등 네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로는 한국과 중국의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서비스산업무역에 관한 수치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및 분류,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이와 그 현황,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산업 및 서비스무역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중 서비스 무역의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분석, 산업간 특화지수분석, 상대적 시장집중도(Relative Market Intensity)분석 등 네 개의 분석방법으로 정확하게 양국의 서비스무역경쟁력을 파악하여, 한·중 양국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평가를 실행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 서비스 무역 분석으로 정확하게 양국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 II. 한·중 서비스무역의 현황

### 1. 서비스무역 구조의 중요성과 분류

#### 1)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서비스산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산업에 비해 그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활동을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산업이며, 일반상품과 비교하면 무형성(intangibility), 저장불가능성(no-storability), 생산과 소비의 불가역성(inseparabil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sup>7)</sup> 그러나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sup>8)</sup>서비스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부가가치창출의 증대, 높은 고용창출효과 등으로 새롭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sup>9)</sup>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되면서 서비스부문은 그 자체가 최종소비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생산부문의 중간투입재가 되고 있다. 서비스는 제조업부문의 성장 및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sup>10)</sup>과거에 개발도상국의 서비스산업은 산업특성상 기술 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부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의 경제가 서비스경제로 전환되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상품에 내재되던 서비스기술이 분리되어 이를 별개의 독립적 업체가 공급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고,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원격지간 조달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었다.<sup>11)</sup> 다양한 서비

7) 유장희,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009.7, p. 58~60.

8) 상계서, p. 62.

9) 李靜, “한·중·일 FTA 추진에 관한 연구-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33.

10) 조인택,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제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2, p.55.

11) 우희승, “한·중·일 FTA 추진에 관한 연구-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25.

스부문 중 특히 디자인, 금융, 통신, 유통 및 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생산서비스 혹은 최신 서비스부문은 그 자체가 최종소비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생산부문에 기본적 투입요소가 된다.<sup>12)</sup>이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부문의 발전 없이는 관련 제조업부문의 성장 및 고부가가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sup>13)</sup> 서비스수요는 재화와 달리 저장성이 불가능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국내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외 환경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다.<sup>14)</sup>따라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 경기 및 고용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한다.<sup>15)</sup>일반적으로 다양성뿐만 아니라 무형성, 저장불가능성 등 특성을 갖는 서비스거래는 국내통상문체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전적으로 국내규범의 규율을 받아왔다.<sup>16)</sup>그러나 21세기에 와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각국은 서비스산업 그 자체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비스무역을 핵심적인 전략부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무역은 세계와 각국의 핵심적이고 전략인 산업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서비스무역은 현재 국가 경제와 주권에 밀접한 분야까지 국제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일국의 서비스무역 발전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둘째,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재화에 대한 수요보다 소득탄력성이 낮아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경기순환에 따른 변동 폭이 작아져 경기변동을 완화 시키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한 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높은 선진경제국일수록 국가경제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

12) 상계논문, p.26.

13) 김영환, "한·중 서비스무역의 국제 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27.

14) 焦天慈, "한·중 FTA 산업별 추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60~61.

15) 상계논문, p.62.

16) 洪秀典, "中韩服务贸易比较研究" 对外经贸大学硕士学位论文, 2006.11, p.6.

넷째, 서비스무역의 확대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등 타산업의 발전 또한 촉진시킨다. 서비스는 독립적인 무형상품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타 산업의 생산 활동에 중간재로 투입되어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 보험, 통신, 회계, 법무, 컨설팅, 광고,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sup>17)</sup>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분업화가 더욱 고도화되면서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부분들이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제조업 등 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섯째, 서비스무역은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한다. 관광, 문화, 스포츠, 유통, 판매 등의 서비스 부문 발전은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커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이에 따른 소비를 촉진하여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여섯째, 특히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은 투입 대비 산출이 매우 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전적인 산업을 크게 압도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의 촉매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가 선진화 되어 갈수록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경제활동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의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는 국가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는데 발판이 되고 있다.

## 2) 서비스무역의 분류

OECD 에서는 서비스분야를 11개 분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WTO, UN, OECD와 국내에서도 기본적인 분류코드로 사용되고 있다.<sup>18)</sup>

<표2-1>서비스 분류코드

1. Transportation
2. Travel

17) 생산자 서비스란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는 투입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기업이나 공장과 같은 생산자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8) 조인택, 전계논문, 2010.2 p.38.

3. Communications services
4. Construction services
5. Insurance services 5.1 Life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5.2 Freight insurance, 5.3 Other direct insurance, 5.4. Reinsurance, 5.5 Auxiliary services
6. Financial Services
7. Computer and information service
8. Royalties and license fees
9. Other business services
10. Personal,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s
11. Government services, n.i.e

자료: Unetal, (2002), "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p. 30-32.

본 연구에서 서비스산업무역의 범주에서 정부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10개 부분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표2-1>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서비스는 대사관, 영사관, 군대 및 방위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적기관 (원조사절 단, 해외주대의 정부 운영 관광, 정보, 홍보사무소 등)이 주재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수출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sup>19)</sup>

<표2-2> 서비스부문과 범위

서비스부문	서비스 범위
운송서비스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해상, 항공, 육상 및 내륙수로, 파이프라인 등)을 이용한 여객 및 재화의 수송, 선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 기타지원 및 보조서비스 등을 포괄
통신서비스	우편 및 송달서비스, 원격통신서비스(음성, 영상, 기타정보의 각종 형태의 송신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제공된 통신 서비스관련 유지보수)
보험서비스	수출입재화에 대한 화물보험서비스, 기타 형태의 원수보험서비스(생명, 손해보험 포함)와 재보험 관련 서비스도 포함.

19) 사악, “한·중 Service무역구조의 비교분석에 관한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8,p.30.

건설서비스	건설서비스는 건설사와 그 직원이 일시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는 건설 및 설치작업에 대한 수입을 포함. 그러나 해외자회사 또는 특정요건을 갖추어 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비법인 현지사무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금융서비스	신용장, 신용한도, 금융리스서비스, 외환거래, 소비자신용, 기업신용서비스, 중개서비스, 증권인수서비스, 각종 헷지거래 계약 등에 관련된 커미션과 수수료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하는 하드웨어 컨설팅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구축, 정보서비스 (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구축, 통신)와 컴퓨터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등
기타 사업서비스	중개 및 기타 무역 관련서비스: 상인, 상품중개인, 딜러, 대리인과 비거주자 간에 수수되는 수수료를 의미. 운용리스서비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계약과 승무원이 동반되지 않은 선박, 항공기와 철도차량, 컨테이너, 시추장비 등 수중 장비의 임대계약을 포함. 기술 및 전문서비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홍보 서비스와 광고 및 시장조사 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건축, 공학 및 기타 기술서비스를 포함.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음향, 영상 및 관련서비스에는 영화나 비디오테이프 제작관련 서비스,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향 리코딩 제작관련 서비스가 포함됨. 기타문화서비스 도서관, 박물관 또는 기타 문화, 스포츠활동 등이 포함.
여행서비스	1년 미만 방문기간 중에 획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대상. 유학 및 치료목적의 환자는 1년 기준에서 제외
정부서비스	대사관, 영사관, 군대 및 방위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적기관

## 2. 한국과 중국서비스무역 구조의 현황

### 1) 세계 서비스무역의 추이

세계 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화 되어가는 서비스 산업의 확산으로 서비스 무역은 각국의 국가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IMF의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2012)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세계 서비스 무역은 수출이 4조170억 달러, 수입이 3조 955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품 교역을 포함하는 전체 세계무역에서의 서비스 무역의 비중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8.6%, 17.7%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서비스 무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계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약 20%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WTO의 보고서<sup>20)</sup>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6년 동안 서비스 무역(15%)은 상품무역(17%)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왔으며, 이는 운송가격의 상승과 함께 서비스의 국제적인 공급이 다양한 형태로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지만, 서비스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세계 부가가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 무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2-3> 세계 서비스 무역의 추세

(단위: 10억 달러,%)

연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무역 상품+ 서비스	14,892	14,648	17,340	16,953	19,889	19,563	15,840	15,495	18,932	18,912	22,425	22,393
연간			164	157	147	154	-204	-208	195	221	185	184

20) World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증할												
상품무역	12017	11,899	13,886	13,704	16,005	15,857	12,416	12,819	15,237	15,402	18,255	18,438
비중	807	81.2	801	808	805	81.1	78.4	78.7	805	81.4	81.4	82.3
연간 증할			156	152	153	157	-22.4	-19.16	227	201	198	197
서비스 무역	2875	2749	3,453	3,248	3,883	3,706	3,423	3,306	3,695	3,510	4,170	3,955
비중	193	188	199	192	195	18.9	21.6	21.3	195	18.6	18.6	17.7
연간 증할			201	182	125	141	-11.8	-3.4	7.9	62	129	127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 2012년.

<표2-4> 2008~2013년 세계 서비스 산업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산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운송	37,368	44,942	24,008	28,864	30,487	39,216	30,816	37,185	31,493	41,185	30,420	37,773
여행	19,056	9,751	15,035	9,804	18,776	10,328	19,920	12,476	20,645	13,429	21,648	14,629
건설	2,608	13,686	2,806	14,553	2,302	11,978	3,795	15,478	3,363	19,709	4,852	20,375
보험	744	466	735	340	882	515	686	518	794	490	916	641
금융	1,740	2,151	2,446	1,580	1,914	1,646	2,025	1,795	2,274	1,838	2,050	1,294

지식재산권 사용료	5,82 3	2,43 4	7,35 6	3,25 5	9,18 3	3,18 8	7,14 5	4,39 9	8,61 7	3,90 3	9,83 7	4,32 8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1,38 6	946 946	1,32 7	883 883	1,44 2	1,03 1	1,53 5	1,31 9	1,51 6	1,51 8	1,83 2	2,15 7
사업서비스	22,2 51	13,0 95	21,1 54	10,1 37	23,8 70	11,6 55	25,7 78	13,5 98	29,0 65	16,2 95	28,1 24	17,6 60
개인·문화 오락 서비 스	514. 1	341. 4	471. 3	380. 1	639. 8	395. 8	608. 4	520. 8	769. 9	674. 9	814. 7	730. 9
정부서비스	936. 2	1,20 6	695. 6	1,11 5	952. 5	1,01 7	1,13 6.5	1,19 5	952. 4	1,23 5	10.7 7.9	1,20 8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세계 주요 서비스 및 상품 무역국 순위(2011년)에 의해서 서비스무역국 순위에서 보듯이 서비스수출국과 수입국에서 모두 미국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다. 미국은 2011년 서비스 수출에서는 5,810억 달러 수출 및 13.9%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서비스수입에서는 3,950억 달러 수입 및 10.0%의 점유율을 기록하다. 상품 무역에서 7,860억 달러의 큰 적자를 기록한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는 1,8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상품 무역 자의 일부를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위국으로 서비스수출국은 영국이, 수입국은 독일이 차지하였다. 영국은 수출액 2,740억 달러로 수출에서 6.6%의 점유율을, 독일은 수입액 2,890억 달러로 수입에서 7.3%의 점유율을 기록하다. 특히 영국의 경우 상품 수출에서는 11위국으로 점유율 2.6%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무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상품 수출 및 수입에서 모두 3위국으로 흑자를 기록한 독일의 경우 서비스 수출 및 수입에서 각각 3위, 2위를 나타내며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상품 수출 1위, 수입 2위인 중국도 상품 무역에서는 흑자를, 서비스 무역에서는 수출 4위, 수입 3위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같이 넓은 토지와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지속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경우 상품무역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sup>21)</sup> 서비스무역에서는 수출 8위, 수출액 1,370억 달러, 수입 7위, 수입액 1,240억 달러로 수출 수입 양쪽에서 모두 한국 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인도는 상품 무역에서 수출은 19위국(점유율 1.7%), 수출액3,050억 달러를 기록하다.

한국은 서비스수출국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품 수출국으로는 7위를 차지하였으나 서비스수출에서는 15위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수출액이 940억 달러로 2.3%의 점유율을, 수입액은 980억 달러로 2.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상품 무역에서는 수출 5,550억 달러, 수입 5,240억 달러로 3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바 한국은 상품무역에서는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가졌으나 서비스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2)</sup>

<표2-5> 세계 주요 서비스 및 상품 무역국 순위(2011년)

순 위	서비스 무역국 순위						상품 무역국 순위					
	수출국			수입국			수출국			수입국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미국	581	13.9	미국	395	10.0	중국	1,898	10.4	미국	2,266	12.3
2	영국	274	6.6	독일	289	7.3	미국	1,480	8.1	중국	1,743	9.5
3	독일	253	6.1	중국	237	6.0	독일	1,472	8.1	독일	1,254	6.8
4	중국	182	4.4	영국	270	4.3	일본	823	4.5	일본	855	4.6
5	프랑스	167	4.0	일본	266	4.2	네덜란드	661	3.6	프랑스	714	3.9
6	일본	142	3.4	프랑스	143	3.6	프랑스	596	3.3	영국	638	3.5
7	스페인	140	3.4	인도	124	3.1	한국	555	3.0	네덜란드	599	3.2
8	인도	137	3.3	네덜란드	118	3.0	이탈리아	523	2.9	이탈리아	557	3.0
9	네덜란드	134	3.2	아일랜드	114	2.9	러시아	522	2.9	한국	524	2.8
10	싱가포르	129	3.1	이탈리아	114	2.9	벨기에	477	2.6	홍콩	511	2.8
11	홍콩	121	2.9	싱가포르	114	2.9	영국	473	2.6	캐나다	463	2.5
12	아일랜드	109	2.6	캐나다	100	2.5	홍콩	456	2.5	인도	463	2.5
13	이탈리아	105	2.5	한국	98	2.5	캐나다	452	2.5	벨기에	461	2.5
14	스위스	94	2.3	스페인	93	2.4	싱가포르	410	2.2	스페인	374	2.0
15	한국	94	2.3	러시아	88	2.2	사우디	365	2.0	싱가포르	366	2.0
	세계전체	4,170	100.0	세계전체	3,955	100.0	세계전체	18,255	100.0	세계전체	18,438	100.0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2012년), p2.p28.

22) 서병욱, 전계논문, 2014,p.21.

일국의 경제가 선진화 되어 갈수록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전체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진다. 선진 경제국가들의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입국들의 통계를 보면, 선진국들의 서비스 산업이 자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07년 현재 평균 70% 육박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의 더욱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76.9%, 영국 76.3%, 프랑스 77.4%, 독일 68.7%, 일본 70.1% 로 서비스 산업이 주요 OECD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넘어서고 있다. 23)

<표2-6> OECD 가입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GDP 대비)

(단위:%)

국가	1997년	2007년	국가	1997년	2007년	국가	1997년	2007년
호주	68.9	68.4	항아리	61.1	66.3	노르웨이	60.4	55.9
오스트리아	66.8	67.7	아이슬란드	61.3	70.5	폴란드	60.0	63.8
별기에	70.1	75.3	아일랜드	56.2	64.8	포르투갈	66.3	73.0
캐나다	66.6	66.1	이탈리아	67.3	70.4	슬로바키아	59.5	57.2
체코	55.2	58.7	일본	65.5	70.1	스페인	65.7	67.4
덴마크	71.2	72.4	한국	56.2	60.0	스웨덴	68.4	70.3
핀란드	63.7	64.2	룩셈부르크	78.2	84.0	스위스	69.8	70.8
프랑스	73.3	77.4	멕시코	59.2	60.9	터키	52.2	63.5
독일	67.7	68.7	네덜란드	70.7	73.6	영국	68.7	76.3
그리스	72.2	75.9	뉴질랜드	67.6	69.2	미국	72.8	76.9

자료: OECD, OECD in Figures 2009 Edition, p.30.

일국의 경제 대하여 서비스 산업의 차지하는 비중을 고용측면에서 보면, OECD 가입국들의 경우 2007년 현재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자국 전체고용의 75%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룩셈부르크 84%, 미국 76.9%, 영국 76.3%, 프랑스 77.4%, 등 일부 OECD 국가들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수준의 전체고용의 80%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인 G7<sup>24)</sup>

23) 왕이남, 전개논문, 2008.p.16.

24) G7(Group of Seven)은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 7개국의

국가들의 평균 서비스 부문 고용수준은 전체고용 대비 72.2%이며, EU-15<sup>25)</sup> 국가들의 평균 서비스 부문 고용수준은 72% 이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전체고용 대비 서비스 산업의 고용수준에서 보듯이, 경제의 서비스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성정과 고용의 두 가지 문제를 서비스업이라는 해법을 통하여 풀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또한 1997년과 2007년의 GDP 대비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5.4% 와 68.7% 이고, 전체고용 대비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각각 63.4%와 68.3%로 나타나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의 서비스화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무역의 대상인 상업서비스의 부문별 세계 수출입 비중을 보면 운송, 여행 및 기타 상업서비스 중 기타 상업서비스의 수출입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 건설, 보험, 금융, 기술 서비스 및 문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 상업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전체 상업서비스의 수출입액에 대하여 기타 상업서비스는 수출측면에 44.8%, 수입측면에서 4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기타 상업서비스의 수출액의 2조 2,400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출액에서의 비중이 53.7%로 확대되었으며, 수입액은 1조 8,600억 달러로 비중이 47.1%로 확장되었다. 이는 기타 상업서비스의 서비스 무역 규모가 운송서비스와 여행의 서비스 무역 규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표2-7> 세계 서비스무역의 부문별 수출입 비중

(단: 10억 달러,%)

구분		금액 2011년	비중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	전체	4,170	100.0	100.0	100.0	100.0	100.0

모임을 말한다. 1998년 영국 버밍엄 회의에서 러시아가 정식으로 참가하면서 G8이 결정되었다.

25) EU-15는 2004년 회원국의 확대되기 전의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회원국들로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웨덴·스페인·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핀란드 등 15개국이다. 2004년에 폴란드 등 10개국, 2007년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하여 27개국이 되었다.

출	운송서비스	860	23.0	22.7	20.0	21.0	20.6
	여행	1,065	32.1	27.7	25.5	25.2	25.6
	기타 사업서비스	2,240	44.8	49.6	54.4	53.7	53.7
수 입	전체	3,955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송서비스	1,100	28.7	28.8	25.4	27.3	27.9
	여행	950	29.9	27.0	24.4	24.1	24.0
	기타 사업서비스	1,860	41.4	44.2	48.9	47.5	47.1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p. 123.

세계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상업 서비스의 부문별 수출액 증가에 따른 성장률로 보면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지난 7년간 운송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7%, 여행서비스의 경우 7%, 기타 상업서비스의 경우 10%로 기타 상업서비스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서비스부문 모두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으나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9년 한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상품 부문의 성장률이 -22%로 감소하다는 것은 그만큼 상품의 무역액의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운송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23%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여행과 기타 상업서비스는 -9%, -7%로 10% 이내의 하락률을 보였다. 2010년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의 큰 하락세 때문에 2005년~2011년 평균성장률은 10%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IMF의 BOP(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에서는 서비스를 운송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정부 서비스 등 총 11개 부문으로 분류하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구성을 보면 여행서비스와 기타사업서비스 부문에서 두 부문 모두 24.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여행의 경우 전통적으로 서비스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지만, 사업서비스 부문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무역에 관련된 서비스, 운송서비스와 법률, 회계, 광고, 건축서비스 등 전문·기술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 부문은 제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장소·시간 제약의 극복과 서비스 공급의 국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의 확대 추세로 인하여 계속해서 사업서비스 부문의 무역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6)</sup>

<표2-8> 세계 서비스 수출의 부문별 구성비(2010년)

(단위: 억 달러,%)

운송서비스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특허권 등 사용료	기타 사업서비스	개인·문화 오락	정부서비스	서비스합계
7,854	9,384	834	945	841	2,660	2,152	2,451	9,374	430	748	37,673
(20.8)	(24.9)	(2.2)	(2.5)	(2.2)	(7.1)	(5.7)	(6.5)	(24.9)	(1.1)	(2.0)	(100.)

자료: IMF,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2010년)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부문은 20.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운송서비스 부문이다. 운송서비스 부문은 화물운송 서비스, 여객운송 서비스, 기타 운송서비스로 분류되는 운송서비스 수출을 구성하고 있다. 앞의 3가지 서비스 부문이 세계 서비스 수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컴퓨터 및 정보, 통신, 정부 서비스, 건설, 보험, 개인·문화·오락 부문 순으로 비중이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 2) 한국의 서비스무역의 현황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범처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었고, 생산 측면에서나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7)</sup>

한국의 서비스 국제교역 현황 파악에 앞서 국내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국민소득 부속 표 (2003년 기준)의 경제활동별 GDP 통계로 알아보면, 먼저 한국의 총 GDP는 2003년 948,8조 원 에서 2005년 1,034.3조 원, 2008년 1,179.7조 원, 2013년 1,381.8조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03년 이후 2013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76%이다. 전기·가스·수도 사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2003년 528.3조 원 에서 2005년 589.8조 원, 2008년 649.9조 원,

26) 왕이남, 전계논문, 2008, p.19~21.

27) 서병욱, 전계논문, 2014. p. 25~26.

2013년 739.5조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03년 이후 2013년 까지 연평균 3.32% 성장하였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3년 62.1%, 2005년 60.7%, 2008년 60.1%, 2013년 59.1%를 기록하여 2000년대 들어 조금씩 그 비중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 및 서비스업은 2003년 6.2%, 2005년 6.1%, 2008년 5.9%, 2010년 5.6%, 2013년 5.2%를 보이며 그 비중이 꾸준히 축소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대상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도 2.2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그 GDP가 2003년 221.1조 원 에서 2005년 256.7조 원, 2008년 311.1조 원, 2013년 396.2조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03년 이후 2013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5.97%로 타 산업들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이고, 광업의 경우에는 비중 또한 축소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이 국민소득 부속표의 경제활동별GDP 통계에서는 서비스업과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WTO/GATS에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서비스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항목의 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3년 이후 2013년 까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연평균 4.0%성장하여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2003년 6.8%에서 2013년에는 4.5%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2002년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의 부도 증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실시와 경기악화로 인한 미분양의 증가, 해외건설 수주감소 등의 원인으로 점차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표2-9> 한국의 경제활동별 실질 GDP (2003년~2013년)

(단위: 조 원,%)

항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성장률
농림	23.2	25.3	25.7	26.1	27.2	26.6	29.6	28.3	27.7	27.5	29.1	1.65
어업	(2.7)	(2.8)	(2.8)	(2.7)	(2.6)	(2.5)	(2.7)	(2.5)	(2.3)	(2.3)	(2.3)	
광업	2.68	2.59	2.57	2.54	2.45	2.46	2.40	2.20	2.18	2.17	2.33	-0.86

28) 왕이남, 전계논문, 2008,p. 22~25.



	(0.3)	(0.2)	(0.2)	(0.3)	(0.2)	(0.2)	(0.2)	(0.2)	(0.2)	(0.2)	(0.2)	
제조업	221.1 (25.9)	242.5 (27.2)	256.7 (27.6)	276.6 (28.3)	299.9 (29.0)	311.1 (29.2)	309.5 (28.7)	351.8 (30.7)	374.8 (31.6)	383.7 (31.6)	396.2 (31.7)	5.97
전기가스수도업	18.3 (2.1)	19.6 (2.1)	20.9 (2.2)	21.4 (2.2)	22.3 (2.1)	23.1 (2.2)	24.2 (2.2)	25.7 (2.2)	25.7 (2.2)	26.7 (2.2)	27.1 (2.2)	4.00
건설업	58.1 (6.8)	58.9 (6.6)	58.9 (6.3)	59.6 (6.1)	61.1 (5.9)	59.5 (5.6)	60.1 (5.5)	58.6 (5.1)	55.4 (4.6)	54.4 (4.5)	56.4 (4.5)	0.52
서비스업	528.3 (62.1)	542.9 (60.8)	564.1 (60.7)	589.8 (60.4)	620.3 (60.0)	640.4 (60.1)	649.9 (60.3)	678.6 (59.2)	699.6 (59.0)	718.9 (59.0)	739.5 (59.1)	3.3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8.4 (12.7)	108.1 (12.1)	110.2 (11.9)	114.9 (11.8)	120.7 (11.7)	122.7 (11.5)	122.3 (11.4)	130.4 (11.4)	137.1 (11.5)	141.7 (11.6)	146.4 (11.7)	2.54
운수 및 통신업	32.7 (3.8)	34.5 (3.8)	35.5 (3.8)	37.2 (3.8)	39.3 (3.8)	41.4 (3.8)	39.5 (3.7)	44.5 (3.9)	46.2 (3.9)	46.9 (3.9)	47.4 (3.8)	3.69
금융보험업	52.8 (6.2)	52.7 (5.9)	55.7 (6.0)	57.7 (5.9)	63.9 (6.1)	66.9 (6.3)	70.2 (6.5)	71.7 (6.3)	72.7 (6.1)	75.5 (6.2)	78.4 (6.3)	3.60
부동산 및 임대업	75.5 (8.8)	77.7 (8.7)	81.2 (8.7)	83.6 (8.6)	85.3 (8.2)	88.2 (8.2)	89.0 (8.3)	91.0 (7.9)	93.3 (7.9)	93.1 (7.7)	93.9 (7.5)	2.32
정보통신업	34.3 (4.0)	36.6 (4.1)	39.3 (4.2)	40.9 (4.2)	42.0 (4.0)	43.1 (4.0)	43.9 (4.0)	45.4 (3.9)	47.9 (4.0)	50.2 (4.1)	52.1 (4.2)	4.35
사업서비스	56.3 (6.6)	59.1 (6.6)	61.2 (6.6)	65.4 (6.7)	70.2 (6.8)	73.4 (6.9)	73.9 (6.9)	77.9 (6.8)	80.9 (6.8)	83.3 (6.9)	87.6 (7.0)	4.88

공공 행정 및 국방 교육	62.3	64.7	67.1	70.2	72.4	74.0	76.8	78.8	80.6	82.9	85.1	3.22
	(7.3)	(7.3)	(7.2)	(7.2)	(7.0)	(6.9)	(7.1)	(6.9)	(6.8)	(6.8)	(6.8)	
서비스업	53.2	54.9	56.3	58.9	60.8	62.6	63.0	63.7	63.8	64.3	64.5	2.22
	(6.2)	(6.2)	(6.1)	(6.0)	(5.9)	(5.9)	(5.9)	(5.6)	(5.3)	(5.3)	(5.2)	
보건 및 사회 복지	28.9	30.4	32.4	34.4	37.1	38.4	41.3	43.9	45.4	48.7	51.6	5.95
	(3.3)	(3.4)	(3.5)	(3.5)	(3.6)	(3.6)	(3.9)	(3.8)	(3.8)	(4.0)	(4.1)	
문화 및 오락 서비스업	24.6	24.5	25.2	26.8	28.8	29.6	29.9	31.1	31.5	31.9	32.5	2.53
	(2.8)	(2.7)	(2.7)	(2.7)	(2.8)	(2.8)	(2.8)	(2.7)	(2.7)	(2.6)	(2.6)	
총부 가가 치(기 초가 격) 순	850.8	892.1	928.9	976.3	1,033.4	1,065.2	1,076.4	1,145.1	1,185.4	1,213.2	1,205	3.86
생산 물세	98.3	103.5	105.5	111.7	113.9	114.5	111.7	120.2	126.5	128.7	131.2	2.86
국내 총생 산(시 장가 격)	948.8	995.3	1,034.3	1,087.9	1,147.3	1,179.7	1,188.1	1,265.3	1,311.8	1,341.9	1,381.8	3.76

주: 1. 전기·가스·수도 사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

2. ( )안은 총부가가치에서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연평균성장률은 2003년 이후 2013년까지의 연간 평균 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4년)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을 산업부문별 고용 상황으로 보면, 먼저 총 취업자 수는 2006년 2315만 명에서 2013년 2607만 명으로 2006년 이후 연평균 1.01%로 증가하였다. 총 취업자 수에 대한 산업별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2006년 178만 명에 그 비중은 7.69%에 이르렀으나 2013년에는 152만 명에 6.06%로 취업자 수의 감소와 함께 비중이 축소되고, 2006년 이후 2013년 까지 연평균 2.18% 감소되었다. 부동산업도 같은 시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의 감소와 비중의 축소 현상이 나타나 2006년 이후 2013년 까지 연평균 0.26% 감소하였으며 2013년 부동산업의 취업자 수는 48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2006년 1730만 명으로 총 취업자 수에서 74.72%의 비중을 차지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35만 명으로 77.1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6년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3.7%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전체 취업자 수의 2/3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WTO/ GATS의 분류와 같이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서비스 산업의 포함하여 분류하면 2013년 현재 총 취업자 수 대비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는 기 비중의 75%에 육박하게 된다. 전기·가스·수도 사업은 8년간 연평균 3.64% 증가하였지만, 건설업은 같은 기간 동안 취업자 수가 연평균 0.38% 감소되었다.

<표2-10> 산업별 고용 현황(2006~2013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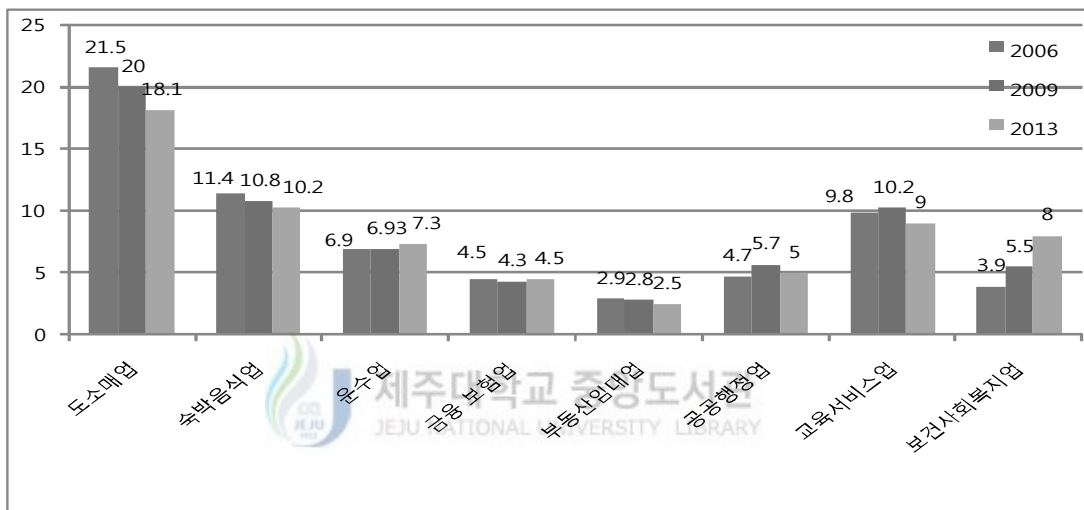
항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농림어업	1,781 (7.69)	1,723 (7.35)	1,686 (7.15)	1,648 (7.01)	1,566 (6.57)	1,542 (6.36)	1,528 (6.19)	1,520 (6.06)	-2.18
광업	16 (0.07)	17 (0.07)	23 (0.98)	23 (0.98)	21 (0.88)	17 (0.70)	15 (0.61)	16 (0.64)	0.61
제조업	4,057	4,014	3,963	3,836	4,028	4,091	4,105	4,184	0.19

	(17.52)	(17.13)	(16.81)	(16.32)	(16.90)	(16.87)	(16.63)	(16.69)	
전기·가스·수 도사업	76 (0.32)	86 (0.37)	90 (0.38)	96 (0.41)	78 (0.33)	76 (0.32)	76 (0.31)	90 (0.36)	3.64
건설업	1,833 (7.92)	1,849 (7.89)	1,812 (7.69)	1,720 (7.3)	1,753 (7.4)	1,751 (7.22)	1,773 (7.18)	1,754 (7.00)	-0.38
서비스업	17,298 (74.72)	17,679 (75.44)	17,906 (75.95)	17,998 (76.57)	18,214 (76.44)	18,595 (76.70)	19,033 (77.12)	19,347 (77.19)	3.7
도매 및 소매업	3,711 (16.02)	3,673 (15.67)	3,631 (15.40)	3,600 (15.32)	3,580 (15.02)	3,638 (15.01)	3,689 (14.95)	3,660 (14.60)	-0.29
숙박 및 음식점업	2,049 (8.85)	2,049 (8.74)	2,044 (8.67)	1,936 (8.2)	1,889 (7.93)	1,854 (7.65)	1,906 (7.72)	1,971 (7.86)	-0.5
운수업	1,193 (5.15)	1,247 (5.32)	1,248 (5.39)	1,247 (5.30)	1,280 (5.37)	1,332 (5.49)	1,380 (5.59)	1,413 (5.64)	2.46
통신업	651 (2.81)	634 (2.70)	627 (2.66)	652 (2.78)	668 (2.80)	703 (2.90)	700 (2.84)	692 (2.76)	1.06
금융 및 보험업	786 (3.39)	806 (3.44)	821 (3.48)	766 (3.26)	808 (3.39)	846 (3.49)	842 (3.41)	864 (3.45)	1.93
부동산 및 임대업	500 (2.2)	505 (2.16)	489 (2.07)	500 (2.13)	517 (2.17)	486 (2.00)	486 (1.97)	485 (1.93)	-0.26
사업서비스업	819 (3.54)	954 (4.07)	974 (4.13)	944 (4.02)	1,023 (4.29)	1,086 (4.48)	1,116 (4.52)	1,173 (4.68)	6.0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01 (3.46)	797 (3.40)	840 (3.56)	1,032 (4.39)	960 (4.03)	951 (3.92)	951 (3.85)	966 (3.85)	2.83
교육 서비스업	1,702 (7.35)	1,740 (7.43)	1,784 (7.57)	1,831 (7.79)	1,799 (7.55)	1,686 (6.95)	1,744 (7.07)	1,748 (6.97)	1.13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681 (2.94)	740 (3.16)	842 (3.57)	998 (4.25)	1,153 (4.84)	1,311 (5.41)	1,399 (5.67)	1,554 (6.20)	11.8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 스업	379 (1.64)	371 (1.58)	419 (1.78)	390 (1.66)	380 (1.59)	417 (1.72)	409 (1.66)	392 (1.56)	0.5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입서비스업	1,219 (5.27)	1,291 (5.51)	1,297 (5.50)	1,211 (5.15)	1,216 (5.10)	1,261 (5.20)	1,286 (5.21)	1,312 (5.23)	1.5

가사 서비스업	138	161	150	147	150	153	166	172	3.76
	(0.60)	(0.70)	(0.64)	(0.63)	(0.63)	(0.63)	(0.67)	(0.69)	
국제 및 외국기관	20	15	16	13	13	13	9	7	12.83
	(0.08)	(0.06)	(0.07)	(0.06)	(0.05)	(0.05)	(0.04)	(0.03)	
총 취업자 수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25,066	1.014

<그림2-1> 한국 주요 서비스업종별 고용비중이 변화(2006년~2013년)

(단위:%)



주: 1. 2014년 서비스산업 취업저수(경제활동 인구조사)

2.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의 변동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은 업종은 제외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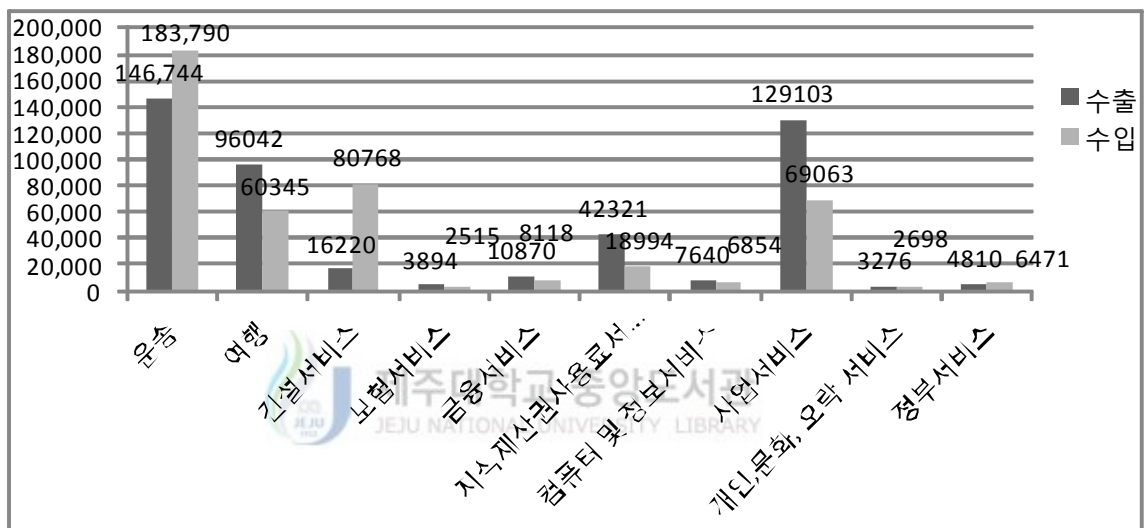
한국 주요 서비스업종별 고용비중이 변화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2006년 21.45%, 2009년 20%, 2013년 18.1% 로 계속해서 서비스업에서 높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2006년 11.4%, 2009년 10.8%, 2013년 10.2%로 도매 및 소매업 다음으로 높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 그 비중의 변화 추이는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비중이 2006년 9.8%, 2009년 10.2%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비중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비중도 2006년 3.9%, 2009년 5.5%, 2013년 8.0%로 나타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서비스부문별 누적 수출입을 <그림2-2>를 살펴보면, 운송서비스 수출액 146,744백만 달러, 수입액은 183,790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서비스 수출 및 수입 모두에서 가장 큰 누적 수출입액을 보이고 있다

<그림2-2> 한국의 서비스부문별 누적 수출입(2009년~2013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러므로 한국 서비스무역액에서 운송서비스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사업서비스 부문은 수출액 129,103백만 달러, 수입액 69,063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 및 수입에서 운송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누적 수출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여행 부문은 수출액 96,042백만 달러, 수입액 80,768백만 달러로 수출 및 수입에서 세 번째로 큰 누적 수출입액을 나타냈다.

3개 서비스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비스부문에서는 교역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11>에 의해서 수출액과 수입액을 나누어 전체 서비스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각각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액 비중에서는 역시

운송서비스가 평균 28.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서비스가 평균 26.03%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여행이 19.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서비스도 3.44%로 수출액과 수입액 합계 비중에서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사용료서비스와 금융서비스가 각각 평균 8.007%, 2.03%를 차지하여 금융서비스도 수출액·수입액 합계 비중에서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가 평균 1.97% 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정부서비스가, 보험서비스,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등은 1%이하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수입액 비중에서도 운송서비스가 평균 39.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건설서비스가 평균 18.37%, 사업서비스 15.94%, 여행이 13.58%,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가 4.2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금융서비스가 정부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각각 약 1.1%~2%의 비중은 차지하였으며, 보험서비스와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등은 1% 미만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표2-11> 한국 서비스 무역의 업종별 현황(2011~2013년)



(단위: 백만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서비스	103,179	90,900	-12,279	108,746	103,533	-5,213	109,434	101,507	-7,92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송	30,815	37,185	6,369	31,492	41,669	10,177	29,943	36,858	6,914
	(29.87)	(40.9)		(28.96)	(40.25)		(27.36)	(36.31)	
여행	19,920	12,476	-7,445	20,645	13,429	-7,216	21,676	14,272	-7,404
	(19.31)	(13.72)		(18.98)	(12.97)		(19.81)	(14.06)	
건설서비스	3,794	15,478	11,684	3,363	19,708	16,345	3,883	19,052	15,169
	(3.68)	(17.03)		(3.09)	(19.04)		(3.55)	(18.77)	
보험서비스	686	518	-167.8	794	490	-304	797	652	-145
	(0.66)	(0.57)		(0.73)	(0.47)		(0.7)	(0.64)	
금융서비스	2,025	1,795	-230	2,274	1,837	-436	2,211	1,782	-429
	(1.96)	(1.97)		(2.1)	(1.77)		(2.02)	(1.76)	
지식재산권사용료서비스	7,415	4,399	-3,016	8,616	3,902	-4,714	9,752	4,232	-5,520
	(7.19)	(4.84)		(7.92)	(3.77)		(8.91)	(4.17)	

용료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1,535 (1.12)	1,319 (1.45)	-216	1,516 (1.39)	1,518 (1.47)	1.4	1,821 (1.08)	2,103 (2.07)	282
사업서비스	25,778 (24.98)	13,598 (14.96)	-12,181	29,065 (26.73)	16,295 (15.74)	-12,770	28,876 (26.39)	17,378 (17.12)	-11,498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608 (0.59)	521 (0.57)	-87.6	770 (0.7)	675 (0.65)	-95	787 (0.72)	726 (0.72)	-61.5
정부서비스	1,136 (1.1)	1,194 (1.3)	58	952 (0.88)	1,235 (1.19)	282.6	1,074 (0.98)	1,911 (1.88)	116.7

주: ( )안의 값은 서비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 3)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현황

중국 국제 수지 평형 표 (BOP)와 중국 상무부 중국 서비스 무역 발전 보고서중 서비스무역의 분류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운송서비스 관광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특허사용권(특권서비스) 자문서비스 광고 및 홍보서비스 문화오락서비스 등 12종 서비스 업종이다. 각 서비스업 자원을 이용의 다름에 따라 운송서비스는 자본 집약형이고 관광서비스는 자원 집약형이라고 볼 수 있다, 운송서비스 및 관광서비스는 전통적인 서비스무역 형식이고 다른 서비스업종은 주로 기술 및 지식 집약형 서비스무역이다.

과거 중국은 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엄격한 진입제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계획경제 시기에는 서비스 부문을 순수 소비부문으로 인식하여 서비스 산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대부분의 국가독점 사태이거나 국유화 되어있었으며 외국자본에 대해 개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서비스 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였고, 2001년 WTO 가입약속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전면적 대외개방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무역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과 2011년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세계 서비스무역 수출 총액이 7,804억 달러에서 41,5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총액은 8,203억 달러에서 38,67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sup>29)</sup> 중국 서비스무역 수입액이 1990년 41억 달러에서 2011년에 2,370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세계의 3위를 차지했다. 서비스무역 수출액이 1990년의 57억 달러에서 2011년에 1,821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세계4위를 차지하였다.

<표2-12> 1999년~2012년에 중국 서비스무역 세계 순위

연도	서비스무역 총액	수출	수입
1999	13	14	10
2000	12	12	10
2001	13	12	10
2002	9	11	9
2003	9	9	8
2004	9	9	8
2005	9	9	7
2006	8	8	7
2007	6	7	5
2008	5	5	5
2009	4	5	4
2010	4	4	3
2011	4	4	3
2012	3	5	3

자료: 중국 국가 통계국

중국 서비스 무역이 급속도로 증가를 발전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중국이 현재 전 세계 서비스무역의 주요국이 되어가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에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 및 외자유치에 매달려온 기존의 경제발전 계획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성장 패러다임의 제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sup>30)</sup>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년 평균13.13% 속

29) 胡俊傑, “韓·中 서비스貿易의 現狀과 發展方案”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2.8.p.28.

30) 왕이남, 전개논문, 2008,p. 34.

도로 증가했고 세계 서비스무역의 2배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은 4,191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2년에 중국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은 4,706억 달러를 넘었다.

<표 2-13>를 보면, 2001년에 중국WTO에 가입 후에 서비스무역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08년에 경기위기 영향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2009년 후에 서비스무역액은 다시 증가하였으며, 중국 서비스 수출과 수입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비록 중국 서비스무역액은 증가하지만 중국서비스무역 아직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서비스무역의 발전단계는 낮지만 잠재력은 매우 높다.

<표2-13> 2001~2012년 중국 서비스무역의 동향

(단위: 억 달러)

년도	서비스무역 총액			서비스 수출액			서비스 수입액		
	금액	증가율	세계비중	금액	증가율	세계비중	금액	증가율	세계비중
2001	719	9.0	2.4	329	9.1	2.2	390	8.8	2.6
2002	855	18.9	2.7	394	19.7	2.5	461	18.1	3.0
2003	1,013	18.5	2.8	464	19.7	2.5	549	19.0	3.1
2004	1,337	32.0	3.1	621	33.8	2.8	716	30.5	3.4
2005	1,571	17.5	3.2	739	19.1	3.0	832	16.2	3.5
2006	1,917	22.0	3.8	914	23.7	3.2	1,003	20.6	3.8
2007	2,509	30.9	3.8	914	23.7	3.2	1,293	28.8	4.1
2008	3,045	21.4	4.1	1,464	20.4	3.8	1,580	22.2	4.4
2009	2,867	-5.8	4.3	1,286	-12.2	3.8	1,581	0.1	4.9
2010	3,624	26.4	5.0	1,702	32.4	4.6	1,922	21.5	5.5
2011	4191	15.6	5.2	1821	7.0	4.4	2370	23.3	6.1
2012	4706	12.3	5.6	1904	4.6	4.4	2801	18.2	6.8

자료: 중국 서비스 무역망

<표2-14>를 보면,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주로 운수, 관광 등 노동밀집형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10년간 노동밀집형 서비스무역 비중이 축소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산업구조가 단일하고 불균형 상태를 나타낸다. 신흥 업종인 금융, 보험, 통신 컴퓨터 정보제공

광고, 영화 및 비디오, 컨설팅 등 업종의 서비스무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편이다.

<표2-14> 2007~2010년에 중국서비스 산업별 현황

(단위: 억 달러)

산업별	2007		2008		2009		20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운송서비스	312.2	432.7	384.7	503.3	235.7	465.7	342.1	632.6
여행서비스	372.3	297.9	408.4	361.6	396.8	437.0	458.1	548.8
통신서비스	11.7	10.8	15.7	15.1	12.0	12.1	12.2	11.4
건설서비스	53.8	29.1	103.8	43.6	94.6	94.6	144.9	50.7
보험서비스	9.0	106.6	13.8	127.4	16.0	16.0	17.3	157.5
금융서비스	2.3	5.6	3.2	5.7	4.4	4.4	13.3	13.9
컴퓨터 및 정보	43.4	22.1	62.5	31.7	65.1	65.1	92.6	29.7
특허권 등 사용료	3.4	81.9	5.7	103.2	4.3	4.3	8.3	130.4
컨설팅 서비스	115.8	108.6	181.4	135.4	186.2	186.2	227.7	150.9
광고서비스	19.1	13.4	22.0	19.4	23.1	23.1	28.9	20.4
영화영상서비스	3.2	1.5	4.2	2.6	1.0	1.0	1.2	3.7
기타상업서비스	269.1	182.4	260.1	231.2	246.9	246.9	355.9	171.8

주: WTO의 서비스무역의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정부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WTO 국제무역 통계, 중국 상무부

<표2-15>에서처럼, 현재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GDP내 비중이 선진국은 물론 여타 개도국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불합리한 업종 구조(전통 도소매업, 요식업 등 우세, 통신, 금융, 보험 등 신흥업종 취약),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일부 업종에서의 독점체제 존속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WTO가입에 따른 중국시장의 개방은 서비스 산업 자체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구조 합리화, 고용압력 완화, 여타 산업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 등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sup>31)</sup>

31) 庄艳艳, "중국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2011, p. 25.

<표2-15> 중국의 세부 항목별 서비스무역 수지(2005~2011년)

(단위: 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운송서비스	-13.0	-134	-119	-119	-230	-290	-449
여행서비스	75	96	74	47	-40	-91	-241
통신서비스	-1	0	1	1	0	1	5
건설서비스	10	7	25	60	36	94	110
보험서비스	-67	-83	-98	-114	-97	-140	-167
금융서비스	0	-7	-3	-3	-3	-1	1
정보서비스	2	12	21	31	33	63	83
특허권 등	-52	-64	-78	-97	-106	-122	-140
컨설팅서비스	-9	-6	7	46	52	77	98
광고 서비스	4	5	6	3	4	8	12
영화 및 음향	0	0	2	2	-2	-2	-3
기타사업서비스	75	84	87	29	59	184	140
계	-94	-88	-79	-118	-294	-221	-552

자료: 중국상무부(中國商務部)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였지만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중국의 2010년에 서비스무역 수지는 적자220억 달러를 기록하고 2011년 국제대차대조표 수정 데이터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552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서비스무역 수지는 점점 확대되었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중국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는 항목은 여행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이며, 건설서비스도 최근 주요 흑자 항목이 되었다. 운송서비스와 특허권 서비스업의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서비스 항목에서 가장 크게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중국서비스무역은 세계서비스무역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도 있다.

### Ⅲ. 한·중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분석 및 평가

#### 1. 한·중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분석

##### 1)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비교 분석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란 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의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등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관장하는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지수를 통해 특정국의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는 국제경쟁력중의 지위, 특정 산업의 수출이 세계평균수출수준과 비교의 상대적 우위를 반영하여 국가총량과동을 제도하고 특정 산업의 상대적 우세를 나타낼 수 있다.

공식으로 표시 하면:  $RCA_{ij} = (X_{ij}/Y_i)/(X_{wj}/Y_w)$

공식 중에서  $RCA_{ij}$ 는 i국가의 j상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표시하고,

$X_{ij}$ 는 i국가의 j상품의 수출액을 표시하고,

$Y_i$ 는 i국가의 전부상품의 수출총액을 표시하고,

$X_{wj}$ 는 세계 j상품의 수출총액을 표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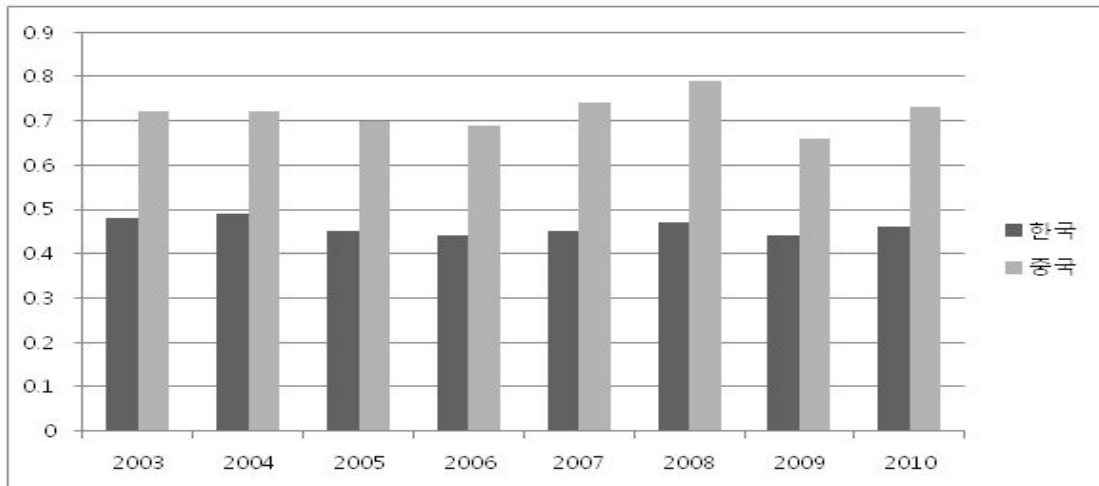
$Y_w$ 는 세계 전부상품의 수출총액을 표시하고.

서비스무역에서  $X_{ij}$ 는 i국가의 서비스무역 표시하고  $X_{wj}$ 는 세계서비스무역 수출액을 표시하다.

일반적  $RCA > 2.5$ 이라면 이 국가의 서비스무역의 매우 국제경쟁력을 갖는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25 < RCA < 2.5$ 이라면 이 국가의 서비스무역의 상대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0.8 < RCA < 1.25$ 이라면 이 국가의 서비스무역은 일반적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RCA < 0.8$ 이라면 이 국가의 서비스무역은 상대적으로 약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32) 庄艶艶, 전계논문, 2011.6 ,p.46.

<그림 3-1> 2003~2010년 한국과 중국 서비스무역 RCA지수



자료: 중국연감(中國統計年鑒),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국 상무부 제공한 수치로 계산

<그림3-1>을 보면, 2008년에 경기위기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의 RCA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2009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의 RCA지수는 모두 0.8이하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중국 서비스무역 모두 상대적으로 약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이 중국보다 RCA지수가 약간 높기 때문에 한국 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조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2) 무역특화지수의 비교 분석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란 한 상품이나 산업의 총 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이나 산업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를 나타낸다. 즉,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한다는 뜻이다. 또 -1이면 완전 수입특화상태를 말하며 수출물량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수입만 한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국제경쟁력지수로 사용되기를 한다. 이런 경우 0이상 1이하 그 제품이나 산업이 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그 제품이나 산업이 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3)</sup>

$$\text{무역특화지수} = (X_i - M_i) / (X_i + M_i)$$

여기서  $i$ 는 해당산업  $X$ 는 수출,  $M$ 는 수입을 나타낸다.  $X_i$ 는  $i$ 산업 또는 상품의 수출액,  $M_i$ 는  $i$ 산업 또는 상품의 수입액을 나타낸다.<sup>34)</sup>

<표3-1> 한국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한 비교우위 분석(2006년~2010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설	0.687	0.687	0.681	0.678	0.678	비교우위
금융	0.667	0.702	0.689	0.533	0.543	
정부	0.304	0.231	0.143	0.222	0.000	
운송	0.055	0.072	0.098	0.100	0.135	
전체	-0.106	-0.076	-0.031	-0.043	-0.047	
지적재산권사용료	-0.403	-0.500	-0.407	-0.385	-0.488	비교열위
여행	-0.530	-0.566	-0.322	-0.210	-0.288	
컴퓨터 및 정보	-0.500	-0.250	-0.333	-0.333	-0.429	
보험	-0.500	-0.429	-0.167	-0.400	-0.286	
개인·문화·오락	-0.273	-0.385	-0.286	-0.231	-0.250	
사업	-0.251	-0.204	-0.353	-0.383	-0.288	
통신	-0.250	-0.286	-0.222	-0.263	-0.304	

자료: 한국은행,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각 년도 참조 정리함.

주: 유지서비스산업을 제외함



<표 3-1>를 보면, 한국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 그룹에는 건설서비스산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TSI지수가 각각 0.687, 0.687, 0.681, 0.678, 0.678이며 한국의 서비스산업중의 가장 안정하게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금융서비스산업은 한국 서비스산업중의 비교우위 분야이지만, TSI지수를 보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치가 각각 0.667, 0.702, 0.689, 0.533, 0.543이며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서비스수지로 분류되어 국제수지에 계상되는 금융서비스는 금융 산업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거래, 수출신용장(L/C)등과 관련된 금융증개수수료, 유가증권거래관련 수수료,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 거래업자의 수수료, 유가증권위탁서비스 등에 한하기 때문에, 소득수지나 자본수지의 고려 없이

33) <http://baike.baidu.com/view/1517049.html>

34) 조인택, 전계논문, p74~75.

서비스수지로 분류되는 금융서비스 수출입액만으로 산출된 TSI 등으로 한국 금융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sup>35)</sup>

운송서비스산업의 경우, 2006년에는 0.55를 기록하였고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며 2007년에는 0.072, 2008년에는 0.098, 2009년에는 0.100, 2010년에는 최대치인 0.135를 기록하였다.

비교열위에는 지식재산 등 사용료서비스의 경우 2006년에는 -0.403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7년 -0.500을 기록하였고, 2008년의 -0.407, 2009년의 -0.385에 상승세를 회복하여 2010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여 -0.488을 기록하였다.

여행서비스의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2006년의 -0.530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07년의 -0.566을 기록하였고, 2008년의 -0.322, 2009년의 -0.210에 상승세를 회복하여 2010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여 -0.288을 기록하였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의 경우 2006년에는 -0.500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회복하여 2007년까지의 -0.250을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0.333, 2009년 -0.333, 2010년 -0.429를 기록하였다.

보험서비스의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2006년 -0.500을 기록한 뒤 2007년 -0.429, 2008년 -0.167로 지속적인 상승을 비이면서 2008년의 -0.167은 최대치로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0.400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회복하여 -0.286을 기록하였다.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의 경우도 무역특화지수가 2006년 -0.273의 수치를 보인 뒤 2007년 -0.385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8년에는 -0.286, 2009년에는 -0.231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여 -0.250을 기록하였다.

기타 사업서비스의 경우 2006년에는 -0.251을 기록하였고, 소폭 회복하여 2007년까지의 -0.204를 기록하였고 이후 계속으로 하락하여 2008년 -0.353, 2009년 -0.383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여 -0.288을 기록하였다.

---

35) 김영환, 서비스 무역의 결정요인과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p.121~122.



통신서비스의 경우 2006년에는 -0.250, 2007년에는 -0.286으로 하락세를 보여, 2008년에는 상승세를 회복하여 -0.222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적으로 소폭 하락하여 2009년에 -0.263, 2010년에 -0.304를 기록하였다.<sup>36)</sup>

<표3-2> 중국 무역특화지수(TSI)을 통한 비교우위 분석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컴퓨터 및 정보	0.277	0.323	0.326	0.340	0.512	비교 우위
건설	0.167	0.301	0.401	0.234	0.480	
기타상업서비스	0.271	0.193	0.059	0.136	0.348	
자문	-0.037	0.031	0.146	0.163	0.203	
홍보, 광고	0.167	0.188	0.073	0.070	0.184	
통신	-0.067	0.043	0.032	0.000	0.043	비교 열위
진체	-0.046	-0.031	-0.039	-0.102	-0.061	
여행	0.165	0.110	0.061	-0.048	-0.090	
영화, 음반	0.000	0.200	0.143	-0.500	-0.600	
정부	0.091	-0.200	-0.125	0.059	-0.048	
운송	-0.242	-0.161	-0.134	-0.328	-0.298	
금융	-0.800	-0.500	-0.333	-0.273	-0.037	
보험	-0.892	-0.845	-0.801	-0.725	-0.806	
로열티 및 라이선스	-0.941	-0.929	-0.890	-0.930	-0.884	

주: 中國外匯管理局, 각 년도 참조 정리함.

위 표를 보면, 비교우위 그룹에는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의 경우 TSI지수가 2006년에는 0.277를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2007년 0.323, 2008년 0.326, 2009년 0.340, 2010년에는 최대치인 0.512를 달한 것을 기록하였다.

건설서비스산업의 경우 TSI지수가 2006년 0.167, 2007년 0.301, 2008년에는 0.401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09년까지의 0.234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여 5년간의 최대치인 0.480을 달한 것을 기록하였다, 기타상업서비스의 경우 TSI지수가 2006년에 0.271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개 연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0.193, 2008년 0.059를 기록하였고, 2009년의 0.136 부터 상승세를 회복하여 2010년까지의 5년간의 최대치인 0.348을 기록하였다.

36) 김영환, 전계논문, p.86~149.

자문서비스의 경우 TSI지수가 2006년에는 -0.037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회복하여 2007년에 0.031, 2008년의 0.146, 2009년의 0.163, 2010년에는 5년간의 최대치인 0.203을 기록하였다. 홍보 광고서비스의 경우 TSI지수가 2006년에 0.167, 2007년에 0.188로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08년에 0.073, 2009년에 0.070을 기록하였고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여 2010년까지 0.184를 기록하였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SI지수가 2006년에 -0.067를 기록하였으나 상승세를 보여 2007년에 0.043을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 0.032, 2009년에 0.000을 기록하였고 2010년까지 소폭 상승세를 회복하여 0.043을 기록하였다.

비교열위 그룹에는 여행서비스의 경우 TSI지수가 2006년에는 0.165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에 0.110, 2008년에 0.061, 2009년에 -0.048, 2010년에는 5년간의 최소치인 -0.090을 기록하였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TSI지수가 2006년에는 -0.242부터 지속 상승세를 회복하여 2007년에 -0.1616, 2008년에 -0.134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도 하락하여 -0.328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소폭 상승세를 회복하여 -0.298을 기록하였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TSI지수가 2006년에는 -0.800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회복하여 2007년에 -0.500, 2008년에 -0.333, 2009년 -0.273, 2010년에는 5년간의 최대치인 -0.037을 달한 것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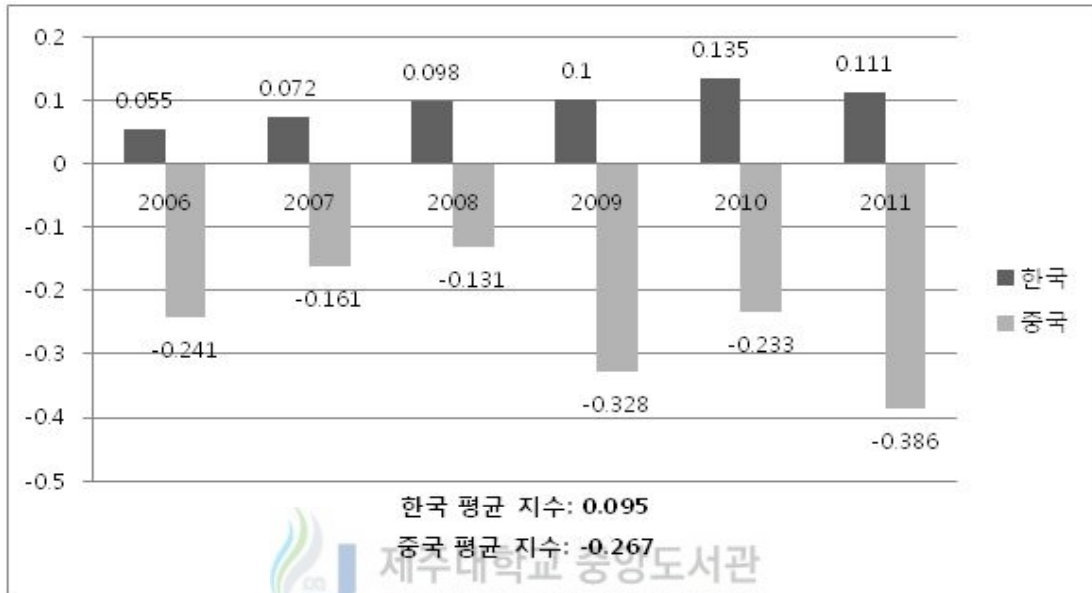
보험서비스의 경우 TSI지수가 2006년에는 -0.892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회복하여 2007년에 -0.845, 2008년에 -0.801, 2009년에 -0.752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도 소폭 하락하여 -0.806을 기록하였다. 로열티 및 라이선스서비스의 경우 TSI지수가 2006년에는 -0.941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소폭 상승세를 회복하여 2007년 -0.929, 2008년에 -0.890을 기록하였고 2009년에 -0.930으로 다시 소폭 하락하여 2010년에는 -0.844로 회복한 것을 기록하였다.

### 3) 산업간 특화 지수비교분석

#### ① 운송서비스

운송서비스부문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TSI는 0.111(+ )를 중국의 TSI는 -0.386(-)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 운송 서비스부문은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2> 한·중 운송서비스부문 TSI지수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자료: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11)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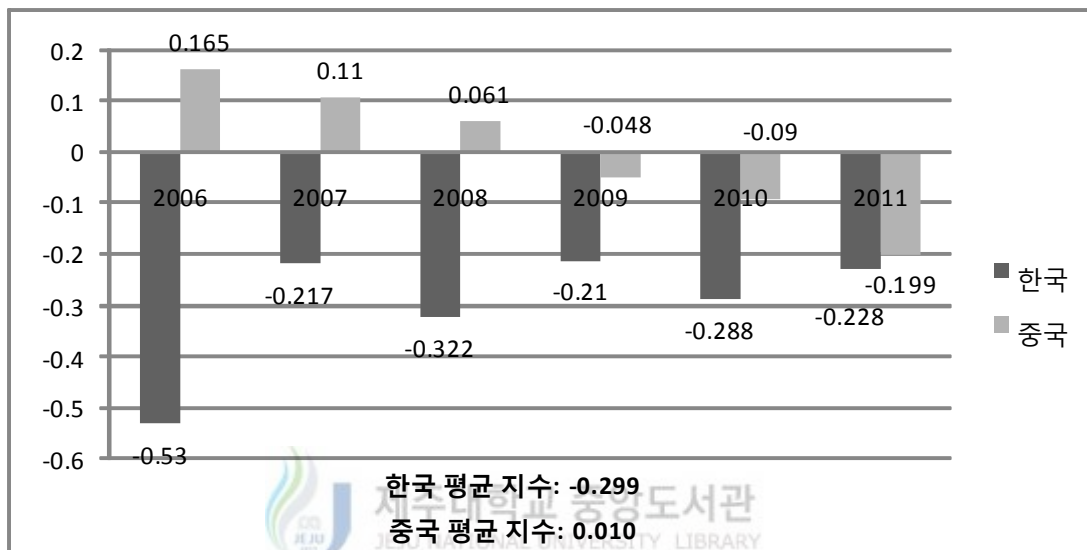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운송서비스문의 TSI지수는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국제간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TSI지수는 상하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제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운송서비스부문의 TSI지수가 계속 부(-)이며, 운송서비스산업무역의 규모로 보더라도 수출액은 계속 한국보다 낮고, 수입액은 한국 보다 계속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화물무역의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운송서비스산업은 화물무역의 성장속도를 따르지 못하며, 한국보다 중국의 국제운송서비스산업의 발전 시간이 짧고 운송기업의 국제경쟁력도 약하고, 특히 WTO에 가입한 후에 중국시장을 한층 더 개방시켰는데 선진국들의 큰 운송기업은 중국에 많이 진입하여 중국정부는 본국의 운송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37)</sup>

37) <http://www.doc88.com/p-37531494865.html>

## ② 여행서비스

여행서비스부문은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의 TSI지수가 -0.228,-0.199로 모두 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수출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3> 한·중 여행서비스부문 TSI지수로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자료: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11)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그러나 중국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장(+)의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수출경쟁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한국 여행서비스산업의 TSI지수는 2006년부터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부(-)를 나타내고 있어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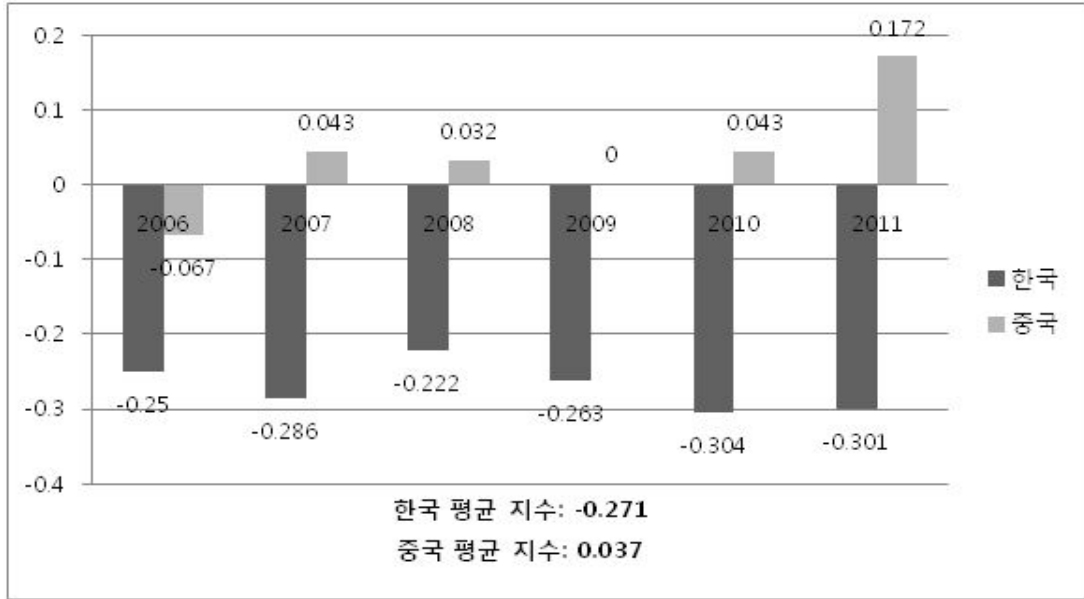
그러나 중국 여행서비스산업의 경우 2006년부터 TSI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여행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2007년부터 TSI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은 한국여행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알 수 있다.

## ③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부문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TSI지수가 -0.304, 중국은 0.043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서비스부문에서 한국은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열위에 있

고, 중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4> 한·중 통신 서비스 부문 TSI지수로 경쟁력비교(2006년~2011년)



자료: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11)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중국은 2006년의 TSI지수가 부(-)를 나타냈지만,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정(+ )을 나타내,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TSI지수도 0.037이며 정(+ )을 나타내어, 또한 한국의 경우 2006년부터 TSI지수가 계속 부(-)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에 점점 통신서비스시장을 개방시켰고 외국의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진입하여 중국 본국의 통신서비스산업에 촉진하여,<sup>38)</sup> 한국의 통신서비스산업의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수출·입 액에 있어서도 중국과 한국의 큰 차이가 별로 없지만 수출액측면에 중국이 한국보다 계속 크고, 수입액측면에 중국이 한국과 비슷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

#### ④ 건설서비스

38) <http://wenku.baidu.com/view/981cfd1910a6f524ccb85fd.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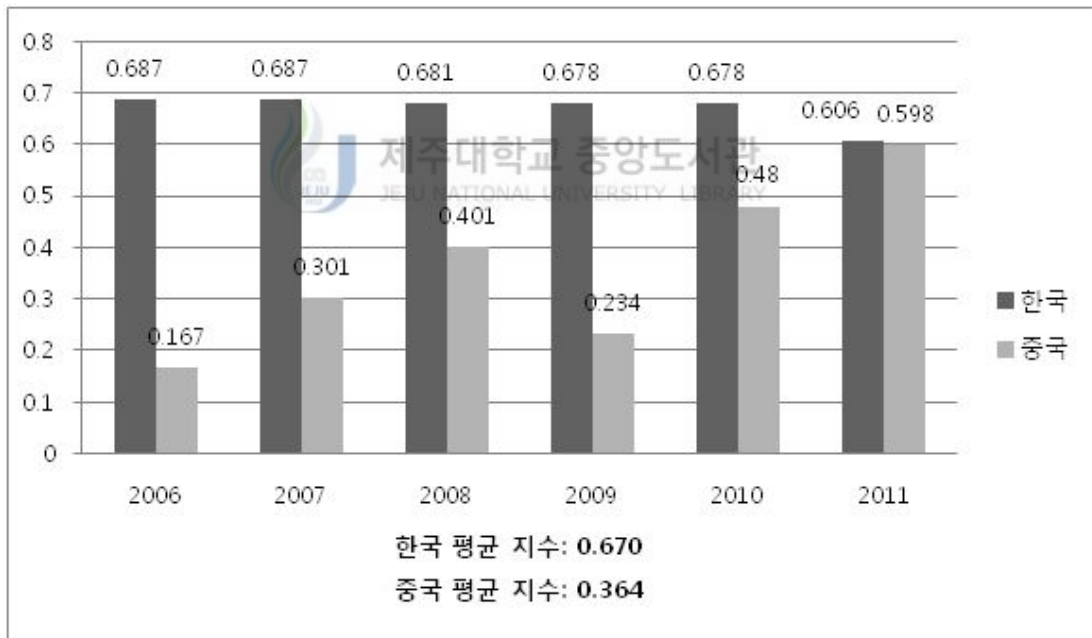
39) 조인택, 전계논문, p.83~84.

건설서비스부문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TSI지수가 한국은 0.606, 중국은 0.598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서비스부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건설서비스부문의 TSI지수가 장(+)을 나타냈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TSI지수가 0.670이지만, 또한 한국의 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TSI지수가 0.364이며 중국보다 훨씬 높다.

수출·입에서 건설서비스부문은 한국 서비스무역의 주요 수출부문으로써 2011년의 건설서비스산업의 수출·입 액이 중국보다 작지만, 총체적으로 중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고 수입액은 계속적으로 중국보다는 작은 것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서비스부문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5> 한·중 건설서비스부문 TSI지수로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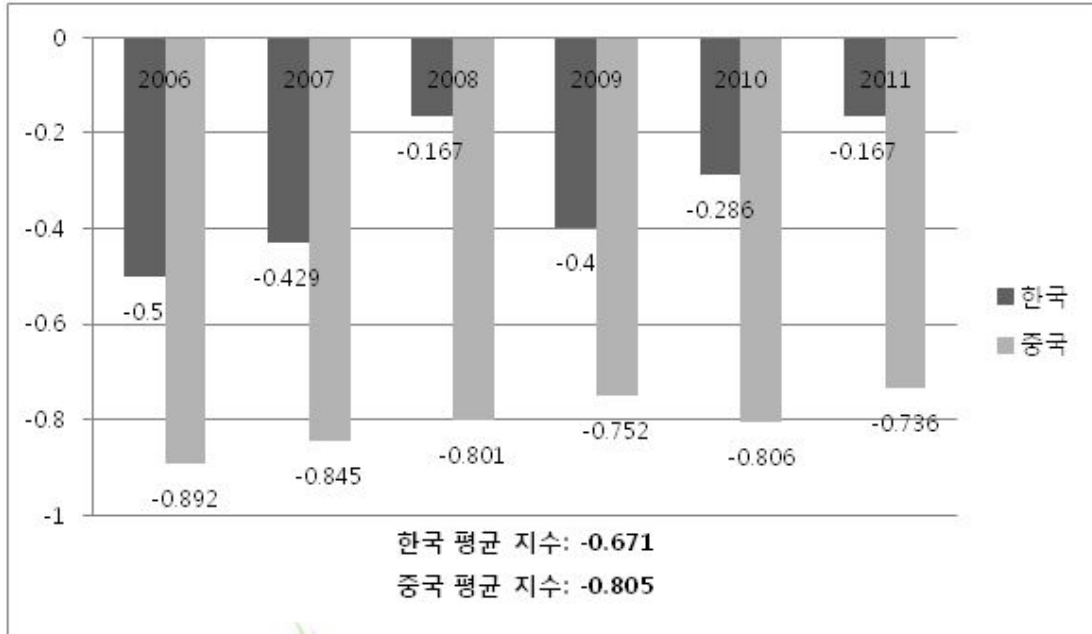


자료: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11)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 ⑤ 보험서비스

보험서비스부문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의 TSI지수가 -0.167, -0.736으로 모두 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수출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6> 한·중 보험서비스부문 TSI지수로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자료: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11)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TSI지수는 계속 높은 부(-)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TSI지수가 -0.805로 한국의 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TSI지수가-0.671보다 낮은 데이는 한국의 보험서비스는 수출이 늘어나서 수입 영향력을 감소시켜 TSI지수를 개선하고 있고, 40)반대로 중국의 보험서비스는 세계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처하고 있고, WTO에 가입한 후에 중국보험시장을 차츰 개방시킴에 따라서 외국의 경쟁력이 강한 보험서비스업은 진입하여 중국본국의 보험서비스산업에 대해 큰 충격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sup>41)</sup>

중국의 각 년도의 수출액과 수입액도 모두 한국 수출액과 수입액의 배수로 나타내어 2010년 기준으로 중국 보험서비스산업의 수출액이 17억 달러, 한국 수출액 5억 달러의 3.4배이지만, 수입액은 158억 달러를 이르고 한국2010년 수입액9억 달러의 17.6배이다. 따라서 보험서비스산업부문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40) 조인택, 전제논문, p.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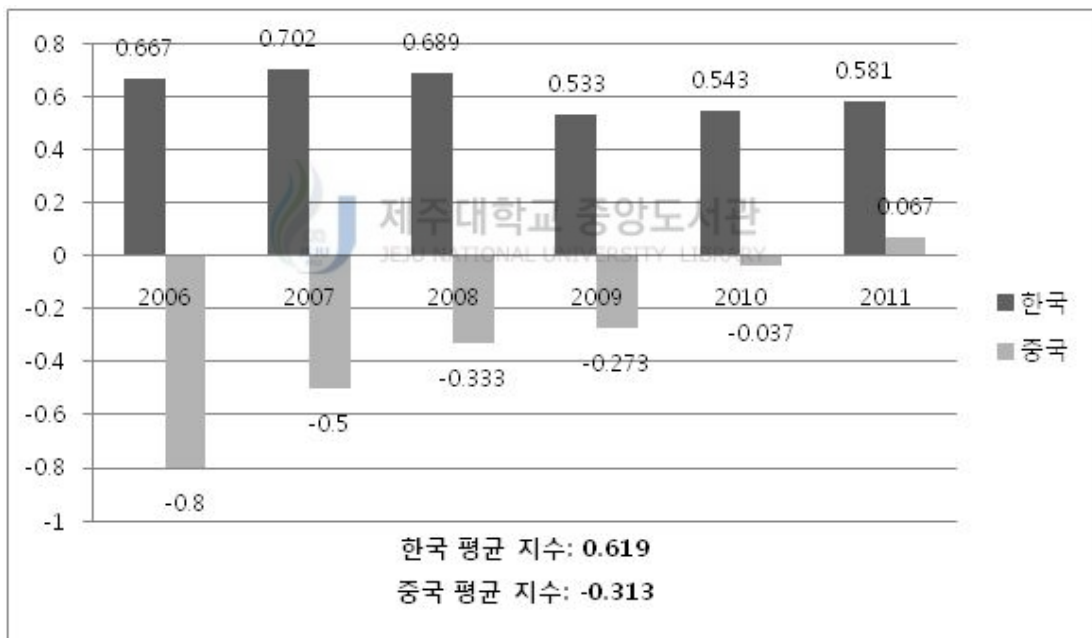
41) <http://wenku.baidu.com/view/3c53e938580216fc700afdd0.html>

경쟁력이 낮은 것을 보여준다.

### ⑥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부문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TSI지수가 한국은0.5481, 중국은 -0.067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보험서비스는 수입금액이 작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략 산업화하여 특화시킬 수 있고,<sup>42)</sup> 반대로 중국 금융서비스산업은 원래부터 중국정부는 엄격하게 통제하는 산업이며 WTO에 가입한 후에 금융서비스 시장은 점차 개방시켰는데 중국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sup>43)</sup> 금융서비스부문에서 한국은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고, 중국은 비교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 한·중 금융서비스부문 TSI지수로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자료: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11)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중국의 2006년부터 TSI지수는 계속적으로 부(-)를 나타내고 있지만, TSI지수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0.800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회복하여 2011년에는 6년간의 최대치인0.067을 달한 것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국내시장을 개방시켰고 외국의 선진한 큰 기업이 중국시장에

42) 조인택, 전제논문, p.85.

43) [http://www.istis.sh.cn/hykjgb/wenzhang/list\\_n.asp?id=5320&sid=1](http://www.istis.sh.cn/hykjgb/wenzhang/list_n.asp?id=5320&sid=1)



진입하면서 중국본국의 금융서비스부문을 적극적 추진하였고 중국정부도 금융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과 법규도 완전하여, 특히 2008년~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시기 에는 중국은 세계금융위기에 미친 영향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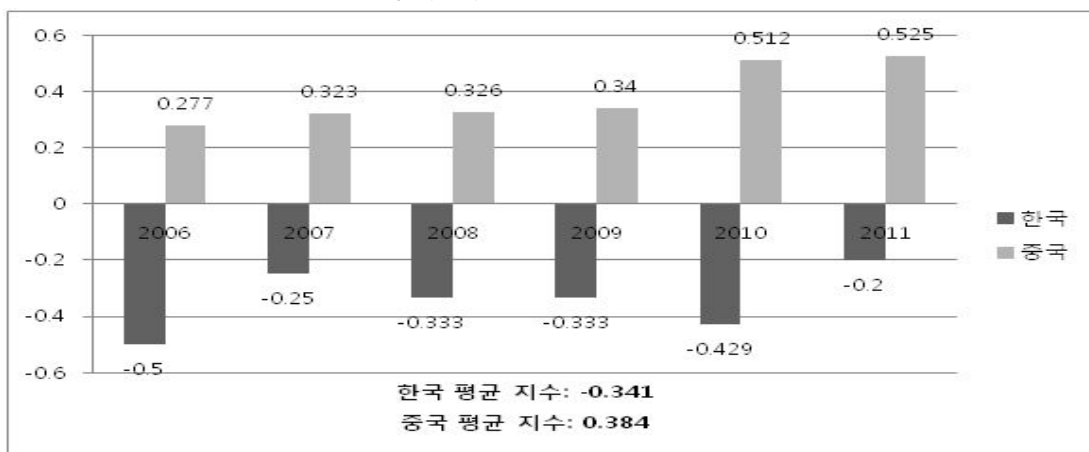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TSI지수가 -0.313이는 반대로, 한국2006년부터 TSI지수가 계속적으로 장(+ )을 나타내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TSI지수가 0.619이며 금융서비스산업에서 중국이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07년부터 총체적으로 금융서비스부문의 TSI지수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 금융서비스부문의 수출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 ⑦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TSI지수가 한국은 -0.200, 중국은0.525로 나타났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에서 중국은 국제경쟁력에서 한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8> 한·중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 TSI지수로  
경쟁력 비교(2006년~2011년)



자료: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11)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44) <http://news.hexun.com/2008-05-09/105847571.htm>

한국의 경우 2007년 한국의 적자성황이 좀 개선되고 있지만, 2008년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TSI지수가 계속적으로 부(-)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TSI지수가 -0.341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2006년부터 수지가 계속 흑자에 처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평균 TSI지수가 0.384이다. 중국의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4) 국제시장점유율

국제시장점유율(IMS)은 한 국가나 지역의 특정 상품(서비스)수출액이 세계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제시장점유율은 한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고, 점유율이 높을수록 이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경쟁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text{공식으로 표시하면: } IMS_{ij} = X_{ij} / Y_{mj}$$

그중에서,  $IMS_{ij}$ 는  $i$  국가의  $j$  상품 무역에서의 국제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  $X_{ij}$ 는  $i$  국가의  $j$  상품의 수출액을 그리고  $Y_{mj}$ 는 세계  $j$  상품의 수출액을 나타낸다. 서비스무역에서  $X_{ij}$ 는  $i$  국가의 서비스무역 수출액을,  $Y_{mj}$ 는 세계서비스무역 수출총액을 나타낸다.

서비스무역에서 이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국은 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이 더 강하고 반대로 이 지수가 낮을수록 해당국은 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이 더욱 약하다고 것을 보여 준다.

국제시장점유율의 계산을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경쟁력이 한국보다 강하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국제시장점유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무역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sup>45)</sup>

<표3-3> 2003~2010년 한중 국제시장점유율

(단위: %)

국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1.71	1.74	1.77	1.74	1.87	1.99	1.71	2.23

45) 庄艶艶, 전개논문, 2011.p.46.

중국	2.48	2.57	2.99	3.29	3.69	3.83	3.84	4.65
----	------	------	------	------	------	------	------	------

자료: 중국연감통계,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국 상무부 제공한 수치로 계산

#### 5) 상대적 시장집중도 지수의 비교분석

상대적 시장집중도(Relative Market Intensity: RMI)란 한나라 한 산업의 시장구조집중정도에 대한 측정지표이며, 기업의 수량과 상대적 규모의 차이를 평가는 시장구조분포의 중요한 계량화지표이다. 시장집중도가 시장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시장의 경쟁과 독점정도의 집중을 아타낸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집중도 계량지표는 절대적 집중도 지표, H.H.I.지수, 상대적 집중도 E.I지수, CRN지수 등 몇 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집중도 지표를 이용하여 시장집중도를 구하고자 한다.

상대적 시장집중도(이하 RMI로 약칭함)란 산업내의 기업의 규모분포상황을 나타내는 시장집중도지표이며, 로렌즈곡선(Lorenz curve)과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로 나타낼 수 있다.<sup>46)</sup>

##### (1) 로렌즈곡선(Lorenz curve)

로렌즈곡은 통계학학자 M.O.로렌츠(Max Otto Lorenz, 1903)가 처음으로 국민소득으로 국민간의 분배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70년에 제출한 후에, 로렌즈곡선이 한나라가 다른 시대 또는 다른 나라가 같은 시대에서의 제부의 균형이나 불균형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부분배의 정보를 귀납하기 쉬운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각 영역에서 각 영역에서 이용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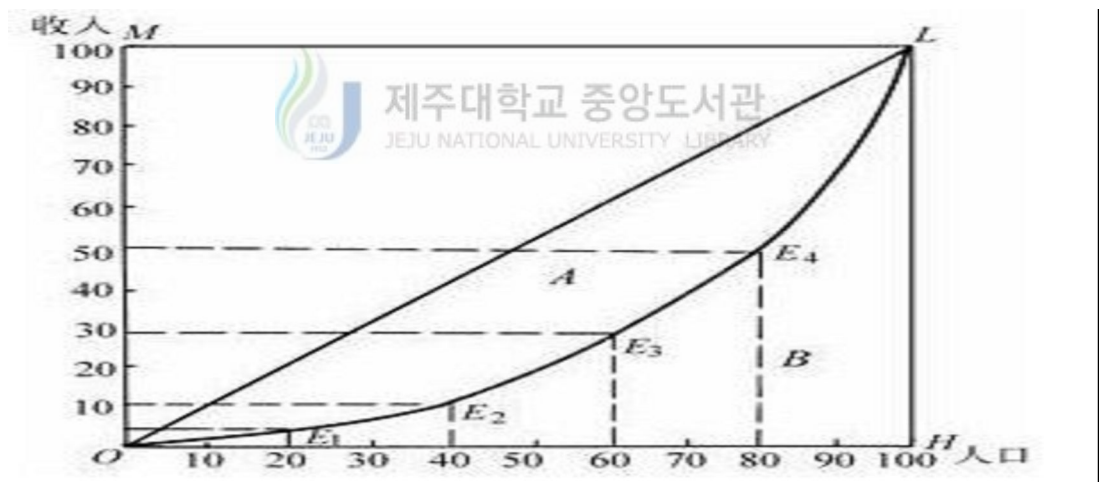
<그림3-9> 로렌즈곡선 기본적인 형태이다. <그림3-9>과 같이 가로축이 OH가 인구, 기업, 산업 등의 수(소득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로 정렬)의 누적백분율이고 세로축이 OM이 인구, 기업, 산업 등의 소득의 누적배분율이며, 곡선이

46) <http://baike.baidu.com/view/1229626.htm>

OEL 이 로렌즈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로렌즈곡선의 굽은 정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곡선은 소득배분의 불균형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굽은 정도가 클수록 불균형정도도 크고, 굽은 정도가 작을수록 불균형정도도 작다. 특히, 만약 전부 소득이 한 사람, 산업이나 기업에 집중하여 다른 사람, 산업이나 기업은 소득을 전혀 못 받을 때 소득배분이 완전불균형 이르고 로렌즈곡선OEL이 꺾은선 OHL이 된다. 또한, 만약 가로축 OH에서의 임의적 한 인구, 산업이나 기업 등 수량의 누적배분율은 그의 세로축 OM에서의 인구, 기업, 산업 등의 소득의 누적배분율과 같아, 이리하여 인구, 산업이나 기업 등 수량의 누적배분율은 소득누적배분율과 같아, 즉 OH, OM의 길이 완전 똑같으며, 소득배분이 완전균형을 나타내어, 로렌즈곡선은 원점을 지나가는 45도선이 OL이 된다.<sup>47)</sup>

<그림3-9>로렌즈곡선



(2)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가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지니(CoeedoGini, 1884-1965)가 로레즈곡선에 의하며, 1912년에 제출한 소득균형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지니계수는 비례지수이며, 0과 1사이에 있어서, 소득배분차이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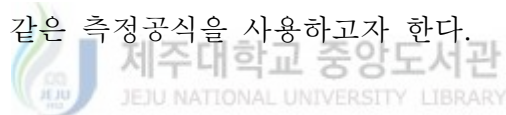
47) <http://baike.baidu.com/view/440079.htm>

지니계수는 최대치가 "1" 이며, 최소치가 "0" 이다. 지니계수가 1이면, 소득배분은 완전불균형, 즉 100%의 소득이 한 단위가 전부 차지한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지니계수가 "0"이면, 소득배분이 완전균형, 즉 단위간의 소득에서 차이가 하나도 없고 완전 똑 같은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의 경우가 이론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실질생활에서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지니계수의 실질수치는 0~1사이에 있는 것뿐이다.<sup>48)</sup>

지니계수가 균등분포선 OL과 로렌즈곡선 OEL사이의 면적은 균등분포선 OL을 빗변, 가로축 OH를 직각변으로 하는 삼각형 OLH의 면적과의 비이다. 위 그림을 참조하여 즉 지니계수는 면적A와 면적A+B의 비이다. 공식으로 하면 아래의 같다.

$$\text{지니계수 } G = \frac{A}{A+B}$$

현재 지니계수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측정공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text{지니계수 } G = 1 - \frac{1}{n} \left( \sum_{i=0}^{n-1} W_i + 1 \right) \quad \text{---49)}$$

여기서의 G가 지니계수이고, n가 인구, 기업이나 산업의 개수이며,  $W_i$ 가 제1조부터 제i조까지 누적한 인구, 기업이나 산업의 총소득의 전부 인구, 기업이나 산업의 총소득에 차지한 비중이다.

UN상관조직의 규정에 따라서, 지니계수가 0.2보다 작으면, 소득이나 재분배가 UN상관조직의 규정에 따라서, 지니계수가 0.2보다 작으면, 소득이나 재분배가

48) <http://baike.baidu.com/view/186.htm>

49) 이 공식은 중국 山西农业大学经贸学院 张建华 강사님은 제출한 공식이다. 이 공식은 정적분의 정의로 이용하여 로렌즈곡선의 적분의 정의로 이용하여 로렌즈곡선의 적분(면적을B(<그림3-9>를 참조)을 n개의 등고사다리꼴로 나뉘서 이n개의 등고사다리꼴의 면적의 합을 구하기를 통하여 로렌즈곡선의 면적을 얻었다. 이 공식의 도출과정은 아래의 웹사이트 주소를 참조하면 된다. [http://blog.sina.com.cn/s/blog\\_3ec2fda00100070c.html](http://blog.sina.com.cn/s/blog_3ec2fda00100070c.html)

절대균형 나타내는 것이고, 0.2~0.3사이에 있으면 보통의 균형을 나타낸다. 0.3~0.4사이에 있으면 상대적 합리를 나타내고, 0.4~0.5사이에 있으면 소득의 격차가 비교적 큰 것을 나타낸다. 0.5이상에 있으면 소득의 격차가 극히 큰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대적 시장집중도지수(RMI)로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12개 산업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지니계수는 모두 0.5이상으로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가 극히 불균형상태에 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4> EU(27), 미국, 한국 및 중국의 서비스산업 지니계수(2006년~2010년)<sup>50)</sup>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Europea n Union	지니계수	0.4587	0.4586	0.4592	0.4360	0.4433
	평균계수	0.4512				
미국	지니계수	0.4487	0.4458	0.4500	0.4510	-
	평균계수	0.4489				
중국	지니계수	0.6466	0.6132	0.5892	0.5841	0.5568
	평균계수	0.5980				
한국	지니계수	0.6305	0.5715	0.6232	0.5786	0.6087
	평균계수	0.5971				

주: 1)EU(27)과 미국의 통계수치는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의 통계참조.

2)한국의 통계수치는 한국은행 ECOS(경제통계시스템)의 통계자료.

3)중국의 통계수치는 国家外汇管理局의 통계자료 각 년도 참조.

한국의 경우 서비스산업무역의 수출은 2006년부터 계속하여 운송서비스산업, 여행서비스산업, 건설서비스산업과 기타상업서비스산업 등 4개 산업에 집중해 있고, 기타 산업의 수출액이 서비스산업무역 총수출에 차지한 비중은 극히 낮다.

50)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의 통계한 서비스부문의 운송, 여행 통신, 건설, 보험, 금융, 컴퓨터 및 정보, 로열티와 라이선스, 기타상업 및 개인·문화·오락서비스산업등 10개 부문이며 이는 중국, 한국의 통계 부문과 차이가 있어 수치를 통일하기 위해 본연구에서는 운송·여행·통신·건설·보험·금융, 컴퓨터 및 정보, 로열티와 라이선스, 기타상업 등 9개 부문을 취하는 것으로 정함.

2010년 기준으로 운송서비스산업의 수출액390억 달러, 여행서비스산업의 수출액 104억 달러, 건설서비스산업의 수출액 120억 달러, 기타 상업서비스산업의 수출액168억 달러이고 서비스산업의 총 수출액의 89.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2006년부터 자문서비스산업의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층 더 중국 서비스산업 무역구조는 균형화로 진일보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여행서비스산업, 운송서비스산업, 자문서비스산업과 기타 상업 서비스산업의 총 수출액이 중국 서비스산업무역 총 수출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68,5%이다.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6년부터 계속 점점 하락되고 있는 것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나날이 균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국의 지니계수는 계속0.6에서 반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EU(27)과 미국 등 세계 선진 국가에 비해서 큰 격차가 있고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불균형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TSI지수, RCA지수, RMI지수 비교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와 같다. 이 표를 살펴보면 본 장 에 비교분석한 한·중 양국 간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부문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표3-5> 한·중 서비스 산업의 평균경쟁력지수 비교표

순위	TSI		RCA		RMI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1	건설 (0.682)	컴퓨터 및 정보 (0.356)	건설 (6.379)	건설 (2.555)	0.5971	0.5980
2	금융(0.627)	건설 (0.317)	운송(2.015)	여행(1.174)		
3	운송(0.092)	기타상업 (0.201)	기타상업 (0.702)	운송(1.009)		
4	통신 (-0.265)	여행 (0.040)	금융 (0.515)	컴퓨터 및 정보 (0.804)		
5	기타상업 (-0.296)	통신 (0.010)	여행 (0.422)	기타상업 (0.804)		

6	보험 (-0.369)	운송 (-0.233)	통신 (0.370)	보험 (0.389)		
7	컴퓨터 및 정보 (-0.369)	금융 (-0.389)	보험 (0.230)	통신(0.366)		
8	여행 (0.383)	보험 (0.819)	컴퓨터및정보 (0.071)	금융 (0.041)		

주: (2006~2010년) 앞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임.

## 2. 한·중 서비스무역에 대한 경쟁력 평가

한·중 서비스 무역의 종합평가에 앞서 서비스무역 부문별 수출액의 합인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의(정부서비스 부문 포함)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본다. 우선 한·중 양국의 서비스무역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을 보면, 2006년 이후 한국, 중국의 RCA 지수의 변화추이는<표3-6>에 정리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운송, 건설 업종은 분석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1 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 여행, 사업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업종 등에서 1보다 작은 값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부가가치 업종인 사업서비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RCA 지수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2006년0.762→2011년0.752). 더불어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역시 경쟁력이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RCA지수가 여전히 1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절대적인 크기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CA지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서비스분야 중 운수 및 공공 서비스에서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사업서비스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중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6> 한국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통한 비교우위분석(2006년~2011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설서비스	5.651	6.239	6.353	8.301	5.350	6.739	강한비교 우위
운송서비스	1.986	2.019	2.101	1.866	2.103	1.866	상 대 적



							강한 비교 우위
통신서비스	0.417	0.337	0.324	0.374	0.400	0.348	약한비교 우위
여행서비스	0.378	0.322	0.431	0.513	0.468	0.510	
보험서비스	0.243	0.241	0.244	0.172	0.248	0.256	
금융서비스	0.564	0.622	0.537	0.420	0.431	0.477	
컴퓨터 및 정보	0.117	0.084	0.064	0.049	0.040	0.070	
특허권 등							
사용료	0.630	0.416	0.461	0.693	0.534	0.693	
기타상업서비스	0.672	0.789	0.789	0.643	0.749	0.752	
개인·문화·오락	0.544	0.404	0.521	0.568	0.555	0.78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공한 수치로 계산

중국의 서비스사업 중의 건설서비스사업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의 평균 RCA지수는 2,686이며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서비스산업의 경우 RCA지수는 2007년부터 계속 약화되어, 2011년까지 1.045로 떨어지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RCA지수가 1.153로 상대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0.8과 1.25사이에 있는 서비스부문은 운송서비스산업, 여행 서비스산업과 기타상업 서비스산업과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산업이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의 경우 2008년 이후부터 RCA지수가 0.8을 넘었지만, 2006년 이래의 평균 RCA지수가 0.823이 되어 상대적 약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서비스산업, 보험서비스산업, 금융서비스산업과 특허권 등 사용료서비스산업 등 4개 부문은 0.8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4개 부문의 RCA지수를 보면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3-7> 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통한 비교우위 분석(2006년~2011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건설서비스	1.394	2.075	2.941	3.071	3.296	3.341	강한비교 우위
여행서비스	1.363	1.171	1.104	1.181	1.051	1.045	상 대 적 강 한 비 교 우 위
운송서비스	0.998	1.123	1.109	0.872	0.941	0.932	약한비교 우위

기타상업서비스	0.878	0.876	0.709	0.741	0.828	0.686
컴퓨터 및 정보	0.718	0.724	0.829	0.909	0.933	1.109
보험서비스	0.248	0.325	0.422	0.519	0.430	0.802
통신서비스	0.299	0.403	0.458	0.366	0.304	0.386
특허권서비스	0.0309	0.042	0.072	0.049	0.071	0.059
금융서비스	0.014	0.018	0.026	0.042	0.106	0.059

자료: 중국연감(中國統計年鑒) 및 중국상무부 제공한 수치로 작성

<표3-8> 한·중 서비스 무역 국제경쟁력 종합평가

항목	TSI	RCA	6년 평균(IMS)				종합평가
			한국(G)	중국(II)	I= GII	평가	
서비스 전체	경합	경합	1.81	4.02	2.21	경합	경합
운송서비스	한국우위	한국우위	4.49	3.95	0.54	한국우위	한국우위
여행	중국우위	중국우위	0.99	4.53	3.54	중국우위	중국우위
통신	중국우위	경합	0.80	1.47	0.67	경합	중국우위
건설	한국우위	중국우위	0.15	0.11	0.04	중국우위	중국우위
보험	경합	중국우위	0.53	1.87	1.34	중국우위	중국우위
금융	한국우위	한국우위	1.14	0.19	0.95	한국우위	한국우위
컴퓨터 및 정보	중국우위	중국우위	0.14	3.51	3.37	중국우위	중국우위
특허권 등 사용료	한국우위	한국우위	1.28	0.22	1.06	한국우위	한국우위
기타 사업서비스	중국우위	경합	1.60	3.12	1.52	중국우위	중국우위
개인·문화·오락	경합	한국우위	1.28	0.44	0.84	한국우위	한국우위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2011)에 나타난 수치로 작성

종합하면, 한·중 양국의 무역에 대한 국제경쟁력 평가를 위하여 IMF의 국제수지통계를 이용한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의 수출경쟁력과 서비스 무역 10개 부문에 대한 부문별 수출경쟁력을 서비스 무역의 국제 경쟁력 대리변수(proxy)로 선정하여 비교한 결과, 운송서비스와 금융,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며, 여행과 통신, 건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부문 등 6개 부문에서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 무역 전체부문에 대한 평가는 한·중 양국의

국제경쟁력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이 2개 더 많은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성장잠재력에 의한 비교우위 판단으로 중국의 최근 서비스 수출 급증에 한입에 중국의 비교우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 간 비교우위 관계우위 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IMF의 국제수지통계가 각국의 대외지급능력상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해당 통계에서 특히,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착오와 누락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해석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 것이다.

#### 1) 한국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평가

한국의 서비스 무역은 고용은 물론 경상지수의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조업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한국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서비스와 제조업의 세계에서의 수출순위로 나타낼 수 있다. 서비스산업 수출순위는 2006년 504억 달러로 세계 20위였으나 제조업의 수출순위는 3,255억 달러로 세계 11위였고 2010년의 서비스산업 수출순위는 820억 달러로 세계 15위이고 제조업의 수출순위는 4,660억 달러로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수출순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서비스산업무역에 대한 통계수치를 의거한 서비스산업무역수지에서 보듯이 운송서비스, 건설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3개의 산업을 제외하며 다른 서비스산업은 계속적으로 무역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행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서비스와 사업서비스가 한국 서비스산업무역의 주요 적자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 서비스산업무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TSI지수와 RCA지수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은 운송서비스산업과 건설서비스산업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산업별 수출·입액을 합쳐서보면 향후 비교우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부문은 금융서비스산업과 기타상업서비스산업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는 이 4개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비교우위산업을 보호하면서 전략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경쟁력이 낮은 서비스산업들에 대하여도 적당한 보호정책을 취한다면 한국의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큰 기업과의 경쟁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에는 중간투입률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산업 58.8%, 서비스업 45.1%, 제조업 74.4%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은 OECD평균과 유사, 제조업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서비스 중간투입률은 전체산업 기준 2000년 20.4%로 나타났고 2005년 20.3% 분석대상국 중 최하위로 경제의 서비스화 부진을 볼 수 있다. 특히 국산·수입과 무관하게 서비스의 활용 부진 양상을 볼 수 있다. 경제 전반에서 생산자 서비스의 활용이 미흡한 구조로 인해서 생산자 서비스 중간투입률은 전체산업 기준 2000년 11.9%부터 2005년 11.6%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 파급효과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 수입 중간투입을 제외하는 경우 생산파급효과가 크게 감소했다. 서비스 중간 투입률이 OECD국가에 비해 낮은 것이기에 OECD국가에 비해 전방파급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업은 총산출기준 노동생산성,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 연관생산성 모두에서 OECD 평균의 전반 수준에 불과, 제조업 생산성이 OECD 평균에 근접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업종별로 보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은 전기·가스·수도, 보건·의료, 공공·국방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분석대상국 중 최하위권(20위 이하)기록, 특히 음식·숙박과 도소매는 OECD평균의 약 32~35% 수준에 불과하다. 생산자 서비스관련 업종의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도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기록한다. 서비스 업종별 연관생산성도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기록한다(보건·의료와 전기·가스·수노를 제외하면 OECD 평균의 대략 40~60% 수준에 불과). 국내 부가가치의 파급효과보다 고용파급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것이기에 대다수 업종에서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연관생산성 수준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보다 더 큰 상대적인 격차를 보인다.

## 2) 중국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평가

1990년대 서비스산업의 성장속도는 단지 2차 산업보다 뒤졌을 뿐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전체 GDP 성장 속도보다는 뒤쳐져 있다. 특히 전통서비스업은 이미 포화된 상태이다. 향후 서비스업의 핵심발전부문을 현대적인 서비스업종이 대체해야 하나,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1992년과 2002년 발표된 서비스업발전을 위한 조치 이후 관련 정책이 현재실시 중에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서비스산업수출총액은 세계 수출총액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이 35.9%를 차지하고 미국은 28.8%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세계의 평균수준에 이르지 않는 15.5%와 15.3%에 이른다. 한편 중국의 서비스산업수출액은 9.7%에 달하는 것을 보아, 중국 서비스산업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지속적으로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서비스산업무역의 상품무역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 매우 높다. 상품무역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상품수출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통적인 서비스부문 즉 생산성서비스부문 해당되는 운송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빠르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 서비스산업무역수지는 여전히 여행서비스산업, 운송서비스산업에 집약되어 있다. 지식, 기술등의 자본집약형을 대표하는 신흥서비스산업 즉, 통신서비스산업 금융서비스산업, 보험서비스산업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한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제도, 과학기술, 지식과 문화 등 기본요소에 제약을 받아서 발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에 세계경제의 중심이 서비스경제로 이전하는 배경에 따라 GATS, 즉 개도국에 대해 주는 혜택을 충분히 이용하여 우선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감소해야 할 것이다.

Michael E. Porter는 서비스산업의 국가 경쟁우위를 분석할 때 “서비스의 국가경제우위에 대하여 수요가 영향력을 가장 갖고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라고 하였다.

모든 국가의 산업경쟁우위의 구축은 합리적이고 완전한 국내사회소비수요의 구조를 기초로 한다. 만약 한 나라의 국민소비가 상품의 소비를 위주로 하여, 서비스산업소비의 비중이 매우 낮거나 서비스산업소비의 등급이 매우 낮으면 이 국가의 서비스산업무역의 국가경쟁우위를 구축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중국은 서비스산업 수요에서 잠재력은 크지만, 1인당 평균소득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 낮고, 소비구조에서 상품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은 서비스산업의 거대한 시장수요에서 의지하여 사람의 소비개념을 변하게 하여, 소비수요구조를 최적화로 하고, 서비스소비의 비중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 IV. 한·중 서비스 무역의 발전방안

서비스산업의 대외시장개방을 통하여 개방경제의 이점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증진이라는 또 다른 면에서의 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무역의 자유화는 시장보호의 차원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매우 높다. 경쟁력이 약한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외국 기업의 진출에 의한 단기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생산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서비스혁신은 기존의 서비스제품을 새롭게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sup>51)</sup>

### 1. 한·중 서비스무역의 발전방안



#### 1) 한국의 대중국서비스무역의 문제점

##### (1) 편중된 제조업중심 정책

서비스 무역은 고용은 물론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한국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서비스와 제조업의 세계에서의 수출순위로 나타낼 수 있다. 서비스산업 수출순위는 2006년에 504억 달러로 세계 20위였으나 제조업의 수출순위는 3,225억 달러로 세계 11위였고 2010년의 서비스산업 수출순위는 820억 달러로 세계 15위이고 제조업의 수출순위는 4,660억 달러로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수출순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sup>5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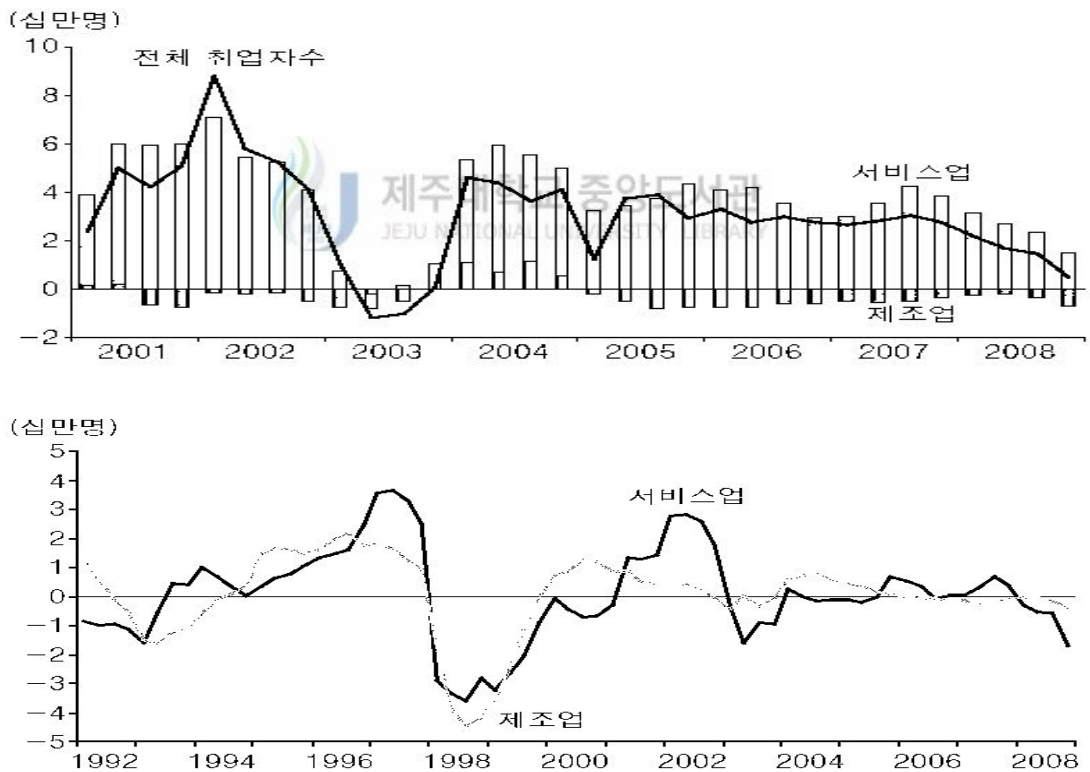
51) 조인택, 전계논문, p102~103

52)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6년~2010년 각 적도의 수치를 참조.

(2) 고용악화

<그림4-1>고용 서정 악화는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중 제조업 취업자수는 4만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출중심의 제조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면서 생산성, 효율성 제고와 자본집약적 산업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추세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4만8천명 줄어든 것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작은 것이다. 반면 제조업에서 이탈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흡수해온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2007년3/4분기 이후 취업자수 증가가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4/4분기의 취업자수 증가가 1/4분기의 절반 수준(15만명)으로 급락하였다.<sup>53)</sup>

<그림4-1>경기 순환에 따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수 변화



자료: 통계청, 윤상하 상계보고서, p.47~48에서 재인용.

주: 계절조정 취업자수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임.

53) 윤상하, “서비스업 고용 흡수 여력 있다” 「LG Business Insight」 1028호, LG경제연구원, 2009.2.16,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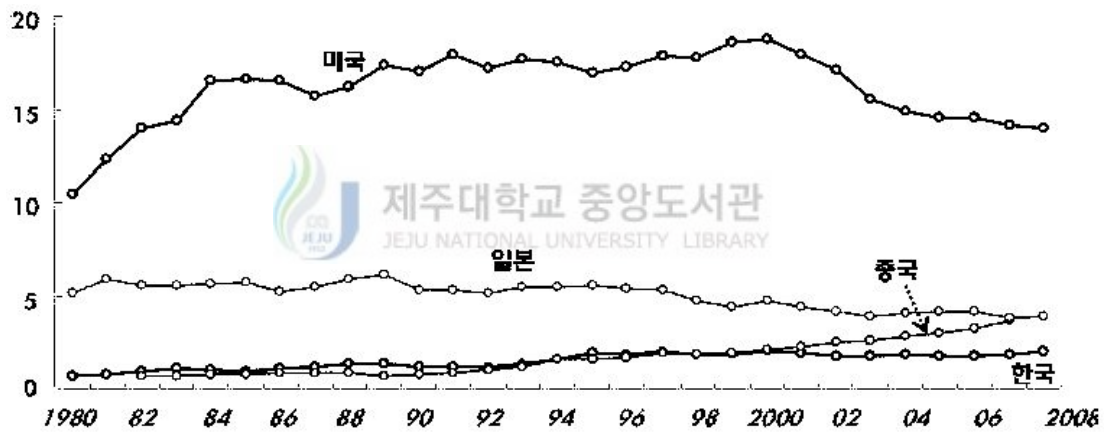


### (3)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

<표2-4>서비스 수출사정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표이다. 한국의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은 일본과 중국보다 낮으며, 199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정체 상태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738억 달러로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 3조 7,313억 달러 중 1.98%에 불과하며 2000년 이후 중국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다.<sup>54)</sup>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시점인 2001년의 경우, 점유율이 하락하는 만큼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4-2>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김진혁, 상계보고서,p.4.에서 재인용.

## 2) 중국의 대한국서비스무역의 문제점

### (1) 무역 불균형 문제

첫째,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의 불균형으로 중국의 서비스무역 수출이 대외무역의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서, 전 세계 대외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약 20%의 전반 수준이다.

54) 김진혁 외, “서비스산업 발전용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과제” 「CEO Information」 706호,삼성경제 연구소, 2009.5.27,p.4.

둘째,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이 불균형을 이루며, 특히 운송, 여행, 보험, 지적 재산권 사용료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무역의 산업구조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 보험,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무역이 매우 빠르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며, 운송, 여행, 건축 등 전통적 서비스무역 분야가 여전히 중국 서비스무역의 주도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무역의 지역발전 불균형이 심각하다. 현재 주요 서비스무역 수출 지역인 동부 연안의 발달지역은 운송, 보험, 컴퓨터와 정보, 컨설팅, 광고홍보 등의 분야에서 내륙지역보다 뚜렷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서비스 무역의 국제시장구조 불균형이 여전하다. 서비스무역의 수출입이 몇 개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상대국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무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sup>55)</sup>

### (2) 서비스무역 기업의 국제경쟁력 미약

중국 서비스무역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약한 상태이다. 즉 서비스무역 기업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작고 기술 수준이 낮으며 관리가 낙후되어 있다. 예컨대, 중국의 국제 여객 운송서비스의 경우, 규모가 작고 국제항로 측면이 매우 취약하다. 화물운수기업도 운송원가 가격확정능력과 서비스 수준 등에서 국제적인 유명화물운송기업에 비하여 차이가 크다. 국제 관광기업은 관광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홍보에 힘써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신흥지식밀집형 서비스무역기업의 발전이 비교적 빠르지만,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여전히 약하다.<sup>56)</sup>

### (3) 서비스무역의 비중 감소

중국 서비스무역의 절대 교역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1>에서 보듯이 중국 서비스무역이 총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4.3%에서 2012년 12.5%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는 세계 평균 19.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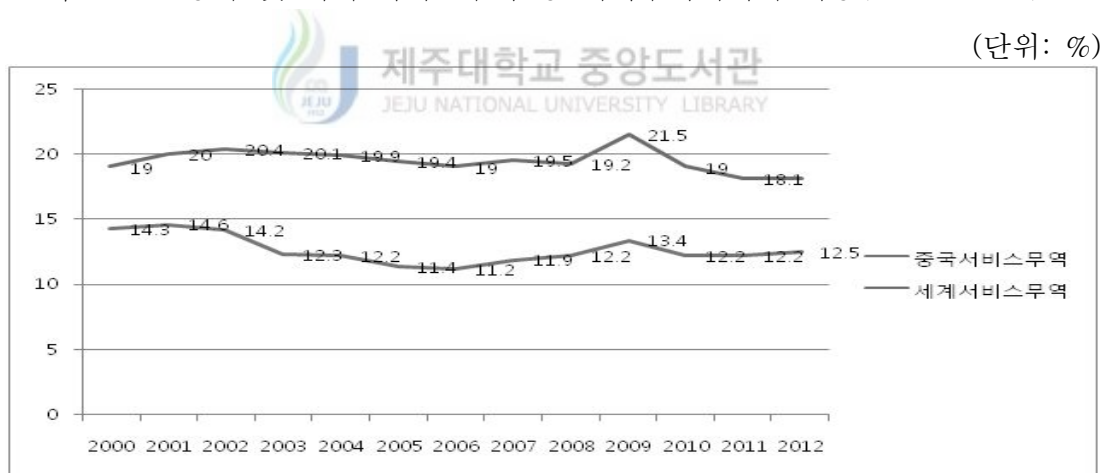
55) KIEP북경사무소 2012,8~9

56) 薛佳 “貿易開放度影響中國經濟增長問題的研究”. 碩士學位論文, 南京大學. 2013.

며, 특히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어 취약하다. 이렇게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 상품무역의 증가 속도가 서비스 무역의 증가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에서도 고용 및 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외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그에 상응하는 무역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중국 서비스무역은 수출입이 모두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 부분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상품무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액의 흑자를 거두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sup>57)</sup>

<그림 4-3> 중국 및 세계 서비스무역 총 대외무역에서의 비중(2000~2012)



자료: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4) 법규 미비, 실질적 진입 어려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정부는 서비스무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법률과 법규를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다. 신규 발표된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이 「상업은행법」, 「보험법」, 「광고법」, 「변호사법」, 「해상

57) 이은경 “중국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 분석 비교경제연구” 2008.p.41-75.

법」, 「외자투자기구관리법」 등이 있지만, 많은 분야가 아직도 관련 법률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거나 법규가 완비되지 않고 미흡한 편이다. 또한 법규 자체가 규범화되지 않아서 관련 법규 간에 상호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sup>58)</sup>

한편, 외자 기업 입장에서 중국이 WTO 양허안에 맞추어 시장을 개방했으나, 외국인 산업지도목록과 반독점규제법 등 각종 연관 법규와 규정을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WTO 양허안에서는 대표 처를 설립하는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외국인산업지도목록에서는 법률컨설팅을 투자제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결국, 영업을 할 수 없는 대표 처 형태의 진출만 허용되어 있고, 국제협약이나 조약, 국제거래 등 아주 일부의 컨설팅 역할만 할 수 있다. 결국, 시장 진입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거나, 관련 법규나 시행방법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등 시장의 실질적인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다.<sup>59)</sup>

## 2. 한·중 서비스무역의 발전방안

### 1) 한국의 대중국서비스무역의 발전방안

첫째, 서비스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서비스무역 중에 운송서비스부문, 정부서비스부문은 한국 서비스무역부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비교우위가 있는 이들 부문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경쟁열위에 있는 여행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이 증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sup>60)</sup>

둘째, 한국은 종전의 제조업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서 서비스산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과 정책상에서의 격차를 줄여 서비스산업 발전의 촉진과 서비스산업무역환경의 개선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고 확보하여, 지식집약형인 통신, 보험 등 국제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와 정책을 실행하여 외국직접투자에

58) 張瑞雪, 周桂榮. “我國服務貿易競爭力影響因素分析——基于“金磚五國”的國際比較.”2013,p.1-2.

59) 심상형.“WTO 가입 10주년, 중국의 비상 : 서비스산업 개방은 현재진행형”2011. CHINDIA Plus p.28-30.

60) 유진,“한국과 중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경기대학교 대학원, 2013.12.p.45.

대해 정책상의 억제를 감소하여 외국서비스산업은 한국의 서비스시장에 진입할 것을 격려하는 정책을 통해 수입억제 보다는 현재 비교우위에 있거나 향후 비교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형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해야 것이다.<sup>61)</sup>

셋째, 무역 기업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WTO 및 자유무역지대 다자간 협상을 이용하고 주요 문제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하고, 쌍무 정부채널을 사용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 상태와 정도, 그리고 다른 산업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규정에 맞는 무역 질서 수출을 촉진한다.<sup>62)</sup>

넷째, 한국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수요 확대를 통한 자국시장의 활성화와 해외수요 시장의 발굴이 필요하다.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규제 등의 정비를 통해 경쟁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2) 중국의 대한국서비스무역의 발전방안

첫째, 서비스무역의 균형발전의 추진되어야 한다. 운송서비스부문, 여행서비스부문 등 전통 서비스무역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정보, 금융, 보험, 컨설팅 등 기술집약형 및 지식집약형 서비스무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서비스무역의 균형발전을 강구해야 한다.<sup>63)</sup>

둘째,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서비스산업부문을 보조한 강도를 확대하여, GATS의 규칙을 이용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은 서비스부문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여행서비스산업, 운송서비스산업과 건설서비스산업 등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을 촉진하고 유리한 정책을 적절하게 제정하고, 이런 산업의 무역규모를 확대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더욱더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국내에서의 수요는 크지만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서로 관련된 보호정책을 만들어 중국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국내의 서비스산업시장을 개방하면 대량의 외국투자 및 선진화된

61) <http://www.mofcom.gov.cn/aarticle/l/dxfw/취/200811/20081105887406.html>

62) “韓國服務貿易現狀、特點及促進政策”, 駐韓國經商參數, 2008.11.13

63) 유진, 전개논문, 2013. 12.p.46.

기술과 관리방법을 도입할 수 있고 국내의 서비스산업의 수준 향상을 제고하게 할 수 있어서 중국 서비스산업발전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중국의 서비스수출을 확대하여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한층 더 통합되게 할 수 있다.<sup>64)</sup>

넷째, 중국을 풍부한 노동력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인력이 부족하다. 중국은 서비스업과 관련한 전공인력 교육기관을 설립하여야 하고, 서비스무역의 발전요구에 적용할 수 있는 고지능의 서비스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서비스무역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sup>65)</sup>



---

64) 사약, 전계논문, 2012.8.p.107~109.

65) 胡俊傑, 전계논문, 2012.8.p.61

## V. 요약 및 결론

과거의 서비스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기술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은 분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상품에 체화되어 제공되던 서비스가 점차 독립된 상품으로 공급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공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서비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의 국제무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비스무역의 확대는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제조업 등 타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무역자유화의 기조와 함께 세계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고 서비스무역의 위상 또한 날로 증가하여 서비스무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경제의 서비스화를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여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은 재화무역에 있어서는 꾸준히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무역적자의 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 경제교류는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왔으나 공산품 무역이나 제조업 투자 등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서의 대중국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서비스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6년 말 현재 총 2,724건, 21억 4,699만 달러 규모로 제조업 분야 투자 총 1만 2,666건, 144억 370만 달러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약 15%수준이다. 2011년 기준, 세계의 서비스 수출국으로 중국은 4위, 한국은 15위에 수입국으로 중국은 3위, 한국은 13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중 양국은 재화무역에서는 국제경쟁력이 있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품무역에 있어서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한중 양국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필연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통한 체질개선이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한중 양국간의 서비스 합정이나 FTA 등

을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서비스무역 완전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준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서비스무역의 산업별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 IMF와 WTO의 서비스무역 관련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산업 무역에 대한 경쟁력과 산업내 무역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산업간 특화지수, 국제시장점유율, 상대적 시장집중도 지수를 통해 각 부문별로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보면, 서비스산업무역 전체에 대한 국제경쟁력에서는 한·중 양국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비스산업 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하게 나타냈고 최근의 지표에 의한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판단해보면 중국이 미미하게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중 양국은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상호 비슷한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고, 지리적과 문화적으로 매우 접근한다. 이에 양국이 상호간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산업자유화로 경쟁이 강화되면, 한·중 양국의 서비스산업에 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서비스산업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이 점차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보면, 적자기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개방과 자유화가 아닌 무역장벽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보호하기만 한다면 이는 특정서비스 부문의 독점적 가격을 보장하게 되어 서비스 자체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민후생을 훼손하고,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투입재가 되는 산업에 있어서 중간재 투입가격의 상승으로 최종생산물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재화무역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조업과 연관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는가 하면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산업도 존재한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정책적 지원과 수출경쟁력 향상, 산업구조의 변화를 인식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한·중 양국간의 서비스무역 구조에 대한 국제경쟁력에 비교분석을 기초적 통계자료를 통한 간접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



하는 것은 무리한 접근이라 생각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 참 고 문 헌

- 김만길, 「WTO통상법」, 大旺社[2006]
- 김영환, 「한·중 서비스산업의 서비스품질평가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2009]
- 김영환, 「서비스 무역의 결정요인과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2012]
- 김진혁 외, “서비스산업 발전용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과제” 「CEO Information」 70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 사악, 「한·중 Service 무역구조의 비교분석에 관한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2012]
- 서빙옥, 「한국 서비스무역에 관한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2014]
- 薛佳, 「貿易開放度影響中國經濟增長問題的研究」. 碩士學位論文, 南京大學. [2013]
- 우회승, 「한·중·일 FTA 추진에 관한 연구-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논문,[2003]
- 유도, 「중국 서비스무역구조 분석」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 유진, 「한국과 중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2013]
- 유창희, 「서비스 분야의 수출산업화 전략」, 한국경제연구원[2009.7]
- 윤상하, “서비스업 고용 흡수 여력 있다” 「LG Business Insight」 1028호, LG경제연구원.[2009]
- 왕이남, 「한·중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논문[2009]
- 이은경, 「중국 서비스산업의 무역구조 분석 비교경제연구」 [2008]
- 李靜, 「한·중·일 FTA 추진에 관한 연구-서비스 부문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2009]
- 張瑞雪, 周桂榮. 「我國服務貿易競爭力影響因素分析——基于“金磚五國”的國際比較」. [2013]
- 庄艷艷, 「중국서비스 무역의 국제경쟁력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숭실대

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11]

조인택,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제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논문  
[2010.2]

焦天慈, 「한·중 FTA 산업별 추진」,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8]

胡俊傑, 「韓·中 서비스貿易의 現狀과 發展方案」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洪秀典, 「中韩服务贸易比较研究」 对外经贸大学硕士学位论文.[2006]

「韓國服務貿易現狀、特點及促進政策」, 駐韓國經商參數.[2008]

#### 인터넷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ttp://www.oecd.org/>

중국상무부 (中國商務部), <http://www.mofcom.cn/>

중국통계국 , <http://www.stats.gov.cn/>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IMF, <http://www.imf.org/>

KOSIS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http://www.kosis.kr/>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http://www.oecd.org/>

OECD대한민국 대표부,

<http://oecd.mofat.go.kr/korean/eu/oecd/main/index.jsp>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

OECD Library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statistics/>

WTO, <http://www.wto.org>


## Abstract

#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Servic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enna, SUN (손문나, 孙文娜)

Departme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wan , Lee



The service industry in the past was low in technological level and it was labor intensive, so it was considered as a field of low productivity. However, the service related to the products is gradually provided as independent goods.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provision of long distance become possible and the productivity increases all of a sudden.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was newly realized. With the change of the realization about service industry, the global trade of service is showing expanding trend. The expansion of service trade contributes to the stable growth of domestic economy and accelerates the development of the production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With the trade liberation, the global trade is being expanded. Meanwhile, the globalization of the service trade is

developing rapidly. The service trade is increasing day by da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more expanded.

However, as the proportion of service trade is increasing, unlike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pursue economy growth, through the globalization and the economy servicization, Korea and China still maintain a trade surplus constantly in the goods trade, but in the service trade, they cannot avoid the trade deficit. The econom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established in 1992. Since establishment, their exchange has been expanding rapidly, but compared to the trade of industrial goods and the investment of production industries, the investment of service in China is relatively low. In the service field, the investment of Korea in China is increasing at the fastest speed, but in the end of 2006, there were totally 2,724 cases of trade with 2 billion and 46.99 million dollars of revenue. The investment in the production field was 10billion and 3.7million with totally 12 thousand and 666 cases, which was the 15% of the sum. In 2011, in terms of service exporting countries, China ranked the forth and Korea 15<sup>th</sup>. Meanwhile, in terms of service importing countries, China ranked the forth and Korea 13<sup>th</sup>. Although in the goods trade both of China and Korea are competitive, it is considered that both of them are relatively less competitive in the service trade.

Both of these two countries have surplus in the goods trade but chronic deficit in the service trad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ervice trade. For this, it is inevitable to improve the structure through the openness and competition of service industry. Accordingly, with promoting the liberation of the service trade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the service treaties or FTA, it can be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to minimize the harms owing to the complete openness of global service trade in the future.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do the comparison analyse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ach industry in the service field in China and Korea, related materials of service trade of IMF and WTO and the statistics of the economics statistics system of Korea Bank were used. In order to assess the competitiveness and trade level inside the industry of service in China and Korea,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ach sector was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Trade Specification Index, the Inter-industry Specification Index, International Market Share and the Relative Market Penetrance Index.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results, as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service industr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China, but serious imbalance in the structure of service industry can be seen. From the aspect of growth potential in the highest index, it can be seen that China occupied relative superiority slightly. Korea and China is in a lower position when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service industry, but they have simila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y are similar in geography and culture. Accordingly, by promoting the liberation of the service industry between two countries, they can remove the trade obstacles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through service industry liberation. With effectiv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it is expected that in the service industry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se two countries can be improved.

On the contrary, it is showing deficit trend constantly. If the service industr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openness and liberation rather than trade obstacles, the monopolistic prices of specific service sectors can be guaranteed. Increasing the service price can harm the national welfare. In addition, the industries which provide materials for the service industry increase the price of the intermediate materials, so the price of the final

products will be increased also. Accordingly, it will weaken the competitiveness in the goods trade. Service industry is various and composed by different industries. There are industries with high added value and labor intensive industries with low added value. As a result, we should realize the policy-related resources and the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and the structure change of the service industries and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rvice industry.

In terms o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service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sults were drawn up through indirect statistics. This approach is considered as insufficient.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ore related studies in the future.

